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연구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보 연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보 연

인 준 서

김보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알레고리 이론은 수사학의 한 장르이자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바디 아트는 개념 미술과 행위 예술을 포괄하여 성장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예술 장르이다. 본 연구는 이에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바디아트 작품을 재구성하여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라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사용된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5점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작품의 관람자 사이에서 지속적인 의미 보충 및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작품에 내포된다고 보았다. 작품 I의 차용에서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샘(Fountain)>을 인체에 적용하여 인체의 구조와 변기를 결합한 형태를 표현함에 따라 인체의 순환과정을 통해 자연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작품 II와 작품 III의 장소의 특수성에서는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의 <나선형 제방(Spiral Jetty)>과 <Yucatan Mirror #1-9>를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화되는 유기적 곡선으로 표현되는 인체의 아름다움 및 인체에 숲의 울창함을 결합하여 자연의 엄중함과 인체의 곡선미를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IV와 작품 V의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에서는 솔 르윗(Sol Lewitte)의 작품인 <Wall drawing>과 <Tondo Plate # 1-6>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기계적인 직선과 기본적인 도형 패턴 및 기본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인체위에 표현함으로써 곡선의 부드러움과 직선과 곡선, 도형의 혼용으로 인한 화려한 운동감을 통하여 일련의 치환과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작품들의 분석 결과 대지 미술 및 개념 미술을 바

디아트라는 행위예술에 접목시킴으로써 자연에 속한 인체를 통하여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과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동화과정이 나타났다. 그리고 인체와 작품의 조합으로 인한 가변적인 측면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으로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바디아트가 갖는 미적인 측면과 복합성으로 표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창출되고 교체되면서 관람자로 하여금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작품에 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디아트 예술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기존 작품과는 상이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3D를 이용한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과 바디아트는 더 많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한 3D 컴퓨터 작업을 응용한 바디아트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미지와 미메시스 등의 예술 철학에 관련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알레고리의 개념	5
2. 현대의 알레고리 의미	8
3. 바디아트의 개념과 표현 기법	20
III.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	37
1. 차용	41
2. 장소의 특수성	46
3.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	50
IV.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적용한 작품 분석	56
1. 제작 의도	56
2. 작품 제작	60
V. 결론	85

참 고 문 헌	89
ABSTRACT	92

표 목 차

<표 1>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59
<표 2>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62
<표 3>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67
<표 4>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72
<표 5>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77
<표 6>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82

그 립 목 차

<그림 1> 회화적 기법 1	25
<그림 2> 회화적 기법 2	25
<그림 3> 회화적 기법 3	25
<그림 4> 회화적 기법 4	25
<그림 5> 그래픽적 기법 1	26
<그림 6> 그래픽적 기법 2	26
<그림 7> 그래픽적 기법 3	27
<그림 8> 그래픽적 기법 4	27
<그림 9> 에어브러쉬 기법 1	28
<그림 10> 에어브러쉬 기법 2	28
<그림 11> 에어브러쉬 기법 3	29
<그림 12> 에어브러쉬 기법 4	29
<그림 13>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1	30
<그림 14>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2	30
<그림 15>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3	31
<그림 16>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4	31
<그림 17>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1	32
<그림 18>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2	32
<그림 19>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3	33
<그림 20>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4	33
<그림 21>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1	34
<그림 22>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2	34
<그림 23>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3	34

<그림 24>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4	34
<그림 25> 디지털 기법 1	36
<그림 26> 디지털 기법 2	36
<그림 27> 디지털 기법 3	36
<그림 28> 디지털 기법 4	36
<그림 29> <샘(Foundation)>.....	43
<그림 30> <자전거바퀴(Roue de Bicylette)>.....	43
<그림 31> 회전하는 유리패널(1920)과 패널의 회전 이미지.....	44
<그림 32> <L.H.O.O.Q. 수염난 모나리자(L.H.O.O.Q. La Joconde)>..	44
<그림 33> 로버트 스미드슨의 나선형 제방(Spiral Jetty)	48
<그림 34> Yucatan Mirror Display #1-9 & Mirror Displacement Gra ssy Project(1973)	49
<그림 35> Mirror Shore(1969)	49
<그림 36> Forking Island(1971) & Bingham Copper Mining Pit-Utah Reclamation Project(1973).....	50
<그림 37> 솔 르윗(Sol Lewitte)의 Wall drawing #565	52
<그림 38> 솔 르윗(Sol Lewitte)의 Kippah	52
<그림 39> 솔 르윗(Sol Lewitte)의 Wall drawing #879 Wake up Doopy	52
<그림 40> 솔 르윗(Sol Lewitte)의 Tondo Stars Plate #1-6	53
<그림 41> 작품 I-1	63
<그림 42> 작품 I-2	64
<그림 43> 작품 II-1	68
<그림 44> 작품 II-2	69
<그림 45> 작품 III-1	73

<그림 46> 작품 III-2	74
<그림 47> 작품 IV-1	78
<그림 48> 작품 IV-2	79
<그림 49> 작품 V-1	83
<그림 50> 작품 V-2	84

I. 서론

현대 미술은 20세기 후반 복잡한 변화와 흐름속의 사회 문화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역시 사회를 반영하듯이 매우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더욱 대담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띠게 되었다.¹⁾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속이자 부정형으로 리얼리즘의 재현 미학을 부정하면서도 예술이 갖는 미학적 우월성의 이중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형식을 중시하고 질서나 일반성, 보편성을 추구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임의성, 유연성, 대중성과 상호 텍스트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장식과 치장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1960~1970년대에 다방면의 문화 예술 분야로 확산되어 신체 예술(Body art), 행위 예술(Performance Art), 설화 예술(Narrative Art), 개념 미술(Conceptual Art) 및 대지 미술(Land Art) 등으로 다채롭고 의외성이 짙은 새로운 경향의 미술사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아방가르드(Avant-garde)한 실험적인 측면과 잡종성(Hybridization) 및 복잡성(Complexity) 특성은 주변의 혼재, 혼성모방(Pastiche), 상호 텍스트성(Inter Textuality), 나열과 병치(Juxtaposition), 콜라주(Collage) 등의 테크닉으로 표현된다.²⁾

특히 1960년대 현대 미술의 행위 미술이나 개념미술 및 대지 미술과 같은 예술장르로 나타났는데,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퍼포먼스 형태로 개념미술의 한 장르로 바디아트가 발전하였다. 즉, 바디아트는 개념미술의 대두와 함께 그 필수적인 기본 이념인 개념과 실행이라는 두 명제를

1) 송병집,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나타난 예술적 인식으로서의 알레고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8, p.1.

2) 네이버지식백과, “포스트모더니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062&cid=42219&categoryId=42228>(2014.12.02.검색)

전체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진 예술장르이다.³⁾ 그리고 단순히 외형의 신체 표현이 아닌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인해 색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시대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새로운 표현과 독창적 활동으로 행위 예술을 위한 표현 방식을 넘어 신체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며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이다.⁴⁾

포스트모더니즘은 중층적이고 다의적인 하나의 일관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닌 다양한 맥락에 근간하여 각기 다른 의미를 발생하게 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난해함”이라는 특징으로 국한시키고, 이 난해한 예술 사조는 “난해함”이라는 다각도에서 해석하여 다양한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적 경험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부정성을 불식시킨다.

이러한 난해함을 일종의 가능성으로 치환하는 프로세스를 알레고리라는 이론으로 적용하였으며, 알레고리적 읽기를 통하여 기존의 담론을 지양하고 담론과 작품, 담론과 수용자간의 거리를 줄이는 지양의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⁵⁾ 즉, 그 자체의 개념과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해하다고 인식되는 현대 미술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종래의 인정받지 못하던 알레고리 이론을 20세기의 현대 미술에 적용하였다. 종래의 알레고리는 예술과 현실의 삶을 연결하는 다의미적인 매개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의 해체주의자들에 의해 파편화되고 이질화된 현대 사회의 여러 모습을

3) 이유나,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29.

4)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

5) 최종철, 알레고리에 대한 미학적 고찰-폴드만의 해체비평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론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

취해 문화적 현상을 대변하는 수사법으로서 재평가되어 수용되었다.⁶⁾ 그는 현대 미술-포스트모더니즘이 갖는 성격이 바로크 예술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며 현대미술을 상징보다 다의적인 알레고리를 적용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더 많은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발터 벤야민의 연구를 이어받아 폴 드 만(Paul de Man)이 언어의 수사성을 알레고리적 가능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비평적 방법론으로 정착하게 된다.⁷⁾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크레이그 오웬스(Craig Owens)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작품에 내재된 알레고리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읽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차용, 장소 특수성의 강조, 일시성, 축적, 논리적 성격, 잡종 교배와 같은 다양한 테크닉을 이용한 알레고리적 충동에 의한 창조물로 보았다.⁸⁾ 즉, 관람자가 작품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외형적인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모든 맥락을 이해한 후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내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⁹⁾

기존의 알레고리 이론을 적용한 미술에 관한 연구는 패션 분야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바탕으로 바디아트 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개념미술의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으로 제작함으로써

6) 송병집(2008), 전계서, p.2.

7) 신광현, 「알레고리」, 현대 비평과 이론, vol 7, 1994, p.309.

8) 네이버지식백과, “알레고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2014.12.02.검색)

9) 송병집(2008), 전계서, p.2.

써 바디아트의 디자인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철학 사상을 활용한 바디 페인팅 작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각적 예술로서의 바디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예술로서의 다양한 재료와 시도를 통하여 조형 예술로서 바디아트의 영역과 장르를 확대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주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에 반영된 알레고리 특성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론적 고찰과 작품 제작으로 하고자한다. 바디아트 작품에 사용할 포스트모더니즘 작품과 알레고리의 연관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과 알레고리 이론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검색 엔진과 선행연구의 제시 그림 및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바디아트의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바디아트 중 바디페인팅 분야로 제한하였다. 연구 작품은 여성 모델을 대상으로 총 5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알레고리의 개념

알레고리(Allegory)는 본래 우의, 풍유의 뜻으로, ‘다르게(allos)’와 ‘말하기(alorenein)’의 합성어로 표현된 단어로서 그리스어 알레고리아(Allegoria)에서 유래되었다.¹⁰⁾ 알레고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나 이미지를 중첩시켜 현상, 추상적인 개념, 상황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금기적, 종교적 개념이나 사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¹¹⁾ 특히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수사법으로도 설명된다. 알레고리는 현대 예술의 해체적 현상을 읽는 도구이자 개념으로, 수용자가 작품을 관찰하고 해석함에 따라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틀로 사용된다.¹²⁾ 알레고리 이론은 보통 상징과 연관성을 가지며 폭 넓은 의미를 담는다. 상징과 알레고리는 보편적으로 언어나 문학의 영역에서 표현방식으로 한정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다.¹³⁾

알레고리는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포스트모던적 사유가 팽배하던 19세기 이후 현대에 들어서 ‘다양성’, ‘타자성’, ‘차이’, ‘다름’ 등의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현대예술의 주된 특성 및 표현 형식으로 부각되어 선호되고 있다. 이는 지시하는 것과 지시되는 것, 즉 기표와 기의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에 따라 상징과 알레고리가 본질적으로

10) 알레고리,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 (2014. 10.18 검색)

11) 노윤채, IT텍스트에서의 은유의 사용-개념적은유와 개념적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와 인터넷 언어의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24, 2014, p.28.

12) 최은정,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7.

13) 김현진, 발터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으로 본 근현대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6-7.

구분되고 예술적 표현방식에 있어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대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⁴⁾

상징과 알레고리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상징은 일원적 의미, 보통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알레고리는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상징은 기호,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숨어 있는 의미를 말하며, 알레고리는 애매성을 매개로 한 표면적 의미와 숨은 의미로 구분되는 다의미(多意味)를 나타낸다.¹⁵⁾ 1차적 의미를 통하여 인물, 행위, 배경과 같은 통상적인 요소를 형상화하고, 그 요소의 배면에 정신적, 도덕적, 역사적인 숨은 2차적 의미를 전개시키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상징과 알레고리 중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의 연관성과 관련 있는 것이 상징이며,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런 까닭으로 알레고리는 은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법의 일종으로서의 고전적인 의미를 가진다.¹⁸⁾ 다시 말해 알레고리는 은유와 환유의 속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성질로서의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⁹⁾ 상징은 표현과 의미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알레고리의 경우 해석이나 배경지식이 필요하고 간접적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알레고리의 이미지는 인물·사물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표현가능하며, 믿음·사치·지혜와 같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도 형상화할 수 있다. 이미지의 형상화는

14) 권정임, 현대 미학적 '알레고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한국 연구재단, 2006, p.6.

15) 문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알레고리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24.

16) 최은정(2006), 전계서, p.27.

17) 김현진(2012), 전계서, pp.6-7.

18)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2002, p.92-116.

19) 최은정(2006), 전계서, p.27.

20) 김명화, 팝아트를 통한 알레고리 표현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1.

의인상 혹은 상징이라고 일컬으며, 알레고리는 의인상 혹은 상징들이 서로 결합된 것, 또는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알레고리는 의미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거나 불분명성을 극복하거나, 하나의 부가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순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부가적 의미가 주어진 이미지로 정의될 수 있다.²¹⁾

그리스 신화에서의 알레고리는 시간, 죽음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은 지혜로운 소수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신화를 해석하는 일은 말할 수 없고 제시되지 않은 잠재적인 것을 명시화하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알레고리는 말해진 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기술이 되었다.²²⁾

이런 특징에 기인하여 알레고리는 말해진 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며, 교리나 사상 체계 속에 있는 추상물을 이야기에 끌어 들여 그것을 장소/인물/사건으로 제시하는 수사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미술에서의 알레고리는 신화나 신학과 같이 도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내용과 형상은 의도적이며 인습된 형태로 고정되어 고정적인 틀에 갇혀 있었다.²³⁾

하지만 19세기 이후 알레고리 개념은 ‘과편성’과 ‘특수성’으로 인간의 정신성이 점차 변화되면서 추상적인 의미와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기표를 기의에 연결하지 않고 지시하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보편적 의미로부터 벗어난 개별 사상과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징보다 우월한 개념으로 선호되기

21) 김내형, 상상계속의 알레고리적 욕망의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4.

22) 김혜영, 문학적 체험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알레고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0, p.316.

23)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현대비평과 이론, 14, 1997, p.184.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다원주의와 모더니즘 미술이 제시한 표현주의적 형식주의, 순수성, 작가 중심적 주관주의가 권위를 상실함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단절된다. 그리고 알레고리 개념은 그 본질인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비동일성’, ‘이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예술의 주된 표현방식으로 발전하였다.²⁴⁾ 형식은 와해되고, 대중적 문화의 차용과 함께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화, 혼합적, 파편적, 분열적인 현상이 드러남에 따라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소서사적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원리와 더불어 알레고리가 등장하는 바탕이 된다.²⁵⁾ 예를 들어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은 변기를 샘으로 환유함에 따라 알레고리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알레고리의 파괴적 성격이 주축을 이루는 이 작품은 기존의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발로 그들의 부르주아적 예술이 갖는 가상을 파괴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사건이자,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한 예술적 해석 방법으로서의 알레고리 가치를 재증명할 수 있는 시도이다.²⁶⁾

2. 현대의 알레고리의 의미

알레고리의 개념은 현실의 이질성과 가변성과 함께 결합하여 본인과 관련된 욕망을 의식/무의식으로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품의 근본적인 기제로 사용된다. 특히 알레고리 이론은 자크 라캉(Jaque Lacan)의 거울 단계- 유아시절에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감각과 지각이 기본이 되는

24) 양덕규, 가상공간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5.

25) 최은정(2006), 전제서, p.31.

26) 김현진, 이동연, 발터 벤야민의 상징과 알레고리로 본 근현대 건축,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2011, p.169.

환상의 세계를 인지하고, 그 속에서 세계의 과편을 선택하여 그 과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위로를 얻음으로서 자아의 완전성을 찾으려고 하는 점에서 케를 같이한다.²⁷⁾ 괴테는 상징과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상징은 자동사, 알레고리는 타동사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징은 지각에게 말하는 반면 알레고리는 지성과 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징은 직각적이며 동기화된 것이고 알레고리는 자의적이며 인습적인 것이라고 하였다.²⁸⁾

이와 같이 현실의 이질성과 가변성을 포괄하며, 이미지·허구·상상·상징·신화·전설은 모두 알레고리와 결합하여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본인과 관련된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알레고리 개념이 상징에 비해 평가 절하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알레고리의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폴 드 만은 낭만주의 문학을 독해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알레고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크레이그 오웬스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읽는 틀로 알레고리 개념을 차용하였다.²⁹⁾

발터 벤야민은 알레고리 이론의 특성을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 해체와 과편화(시간적 특성 및 개인적 체험)으로 나누었고, 폴 드 만은 자신의 논문에서 알레고리의 특성을 시간성, 난해성, 오독성 및 오류성으로 분류하였다. 크레이그 오웬스는 알레고리 이론의 특성을 이미지 차용, 장소 특수성, 장르간의 혼합(혼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레이크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의 특성인 이미지의 차용, 장소의 특수성, 장르간의 혼합(혼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은 III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7) 김내형(2009), 전계서, p.5.

28) 문철(2004), 전계서, p.30.

29) 하임성(2013), 전계서, p.22.

1)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이론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독일 출신의 유대계 언어 철학자로, 현대적 의미의 알레고리를 부활시키고 완성시켰다.³⁰⁾ 그는 알레고리의 자의적인 특성에 기인한 이질성과 우발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거짓된 총체로서의 상징보다 파편으로서의 알레고리가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개념이 설득력을 상실한 현대 세계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³¹⁾ 이는 현대가 비유기적이고 파편화된 현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체에서 이탈한 비체계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알레고리와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의미가 해체된 상태로서 현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³²⁾

벤야민의 알레고리는 초기 예술 비평과 후기 예술 비평으로 구분된다. 초기 예술 비평에서는 멜랑콜리와 형이상학적 사고 그리고 신학적 역사관이 지배적인 반면, 후기 예술 비평에서는 현대적 알레고리를 자본주의와 상품사회를 비판하는 정치적 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초기와 후기 예술 비평 과정에서 사고의 변화는 있었지만 예술 비평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방법론, 언어, 알레고리와 같은 사유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³³⁾

벤야민의 초기 알레고리는 역사의 비참함과 알레고리의 개념을 결부시킨 『독일 비극의 원천(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에서 해체와 파편을 주요 모티브로 취하며, 후기까지 끊임없는 사유방식을 근간으로 한 바로크 알레고리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³⁴⁾ 벤야민에게

30) 네이버 지식백과, “발터 벤야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8433&cid=44546&categoryId=44546>(2014.10.18 검색).

31) 박영욱, 바로크 비애극과 알레고리로서의 이미지, *시대와 철학*, 23, 2, 2012, p.253.

32) 김명화(2009), *전계서*, p.30.

33) 최은정(2006), *전계서*, p.33.

34) 네이버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발터 벤야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0195&cid=42140&categoryId=42140>(2014.12.02. 검색).

알레고리는 건설과 파괴, 희망과 슬픔, 미몽과 각성, 실재와 허구의 반립 속에 생겨난 예술 양식으로 반립구조 속에 있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알레고리적 순간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고대적 신화와 이미지들을 현재에 불러오는 집단적 의식 현상이 강했던 바로크 시대를 단지 꿈이나 마술적 환상이자 근대의 파괴적인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바로크의 알레고리를 선택하였다.³⁵⁾

또한 벤야민은 이러한 초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체에서 분리된 비체계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알레고리가 절대적인 진리나 보편적 개념이 없는 현대사회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새로운 예술의 해석 도구로 적용하였다.³⁶⁾ 그는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풍자적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알레고리의 표현방법을 이용하여³⁷⁾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사용되는 언어 이론에서도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로서의 알레고리적 특성 및 해체와 파편으로서의 알레고리적 특성을 제시하였다.³⁸⁾

(1)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

벤야민은 언어를 알레고리 형성의 원천으로 보고, 계몽주의 이후부터 영미권의 분석적 언어권까지 널리 퍼져있던 도구주의적 언어철학을 비판하고 근대적인 언어 구조를 붕괴함으로써 언어 개념의 확장을 시도하였다.³⁹⁾ 그는 언어를 약속한 기호 체계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언어는 해

35) 문학비평용어사전, “알레고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475&cid=41799&categoryId=41800>(2014.12.02 검색).

36) 네이버지식백과, “알레고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475&cid=41799&categoryId=41800>(2014.12.02 검색).

37)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알레고리”, 이웅백, 김원경, 김선풍 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6021&cid=41708&categoryId=41711>(2014.12.02 검색).

38) 문철(2004), 전계서, p.51.

39) 이영범, 벤야민의 언어철학과 문학적 글쓰기: 초기 언어 논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

당 대상에 내재하는 정신적인 내용의 전달을 지향하는 원칙으로 보았다.⁴⁰⁾ 이러한 언어의 원천에 내포된 의미는 태초에 인간이 사물 속에서 언어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명명한다는 언어 형이상학적 신념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근원적 언어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물이 갖고 있는 것이며 “말하기”를 통하여 사물은 창조되고 인식된다고 보았다.

즉, 사물의 정신적 본질이 인간의 언어로 옮겨진다는 것은 모든 사물 안에 언어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로써 인간의 역할이 신이 창조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의 타락으로 인해 언어는 오로지 소통의 수단으로 제한된다. 자의적 언어를 통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될 때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가 갖는 자의적 기호, 전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사물의 개별적 고유성은 무시되고 언어의 본질은 부정된다고 하였다.⁴¹⁾

또한 그는 언어가 갖는 자의적인 기호로서의 특징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의미를 표출하는 방법이 알레고리적 작품에 적용되고,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내포한 기표와 기의가 맺는 관계의 자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곧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표현된 사물이 알레고리를 구사하는 작가의 손에서 ‘다른 어떤 것’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와 전통적인 의미의 연관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맥락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표의 의미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는 하나의 해석이 절대적일 수 없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알레고리의 특성이다.⁴²⁾ 순수한 언어는 하나의 개

40) 김길웅(1997), 전계서, p.186.

41) 최종철(2004), 전계서, pp.21-22.

별 언어나 하나의 개별 작품에서 표현될 수 없으며, 진리는 오직 파편들의 불연속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원리로 알레고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기원과 현재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들의 반복 속에서 결국 사물은 또 다시 빈 형식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되고 하나의 기이에 종속되지 않는 파편적인 담론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속된다.⁴⁴⁾

알레고리가 기존의 연관성을 파괴하면서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를 피한다면 의미에서 인용도 알레고리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인용한다는 것은 그 연관성의 단절이라는 의미 포함하고, 인용이란 각각의 역사적 대상이 그 연관성에서 분리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⁵⁾ 벤야민의 바로크 연구에서의 인용방식은 바로크라는 시대적 맥락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맥락인 현대 전반을 만들어가는 알레고리를 나타낸다.⁴⁶⁾ 바로크 비극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괴된 자연의 모습은 파괴된 역사를 가리키며, 그러한 역사는 수많은 희생을 낳고 있는 현대의 역사와 연결된다.⁴⁷⁾ 이 인간의 역사는 원래 파편적인 것이고 고통에 찬 것이며 잘못된 것이며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된다.⁴⁸⁾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몰락한 자연에는 이러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과정의 흐름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2) 해체와 파편화

42) 김길웅(1997), 전계서, p.198.

43) 진중권, 현대미학 강의, 서울:아트북스, 2004, p.59.

44) 박지우, 판도라 상자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한 이원적 공간과 기법 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5-6.

45) 최문규, 바로크와 알레고리- 발터벤야민의 언어이론, 뷔히너와 현대문학, 16, 2001, p.13.

46) 이령, 현대화예조형의 알레고리 연구-이미지차용, 장소특수성, 혼성 유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2.

47) 최문규(2001), 전계서, p.9.

48)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서울:민음사, 1983, p.374.

벤야민은 「독일 비극의 기원」에서 바로크 비극을 알레고리로 보면서 잊혀지고 오해되었던 알레고리의 철학적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파편화된 사물의 조각들을 재구성하여 사물 속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으며, 파편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대립과 모순의 강조를 통해 현실 원리를 제기한다는 하나의 구성 원리를 세웠다. 이는 알레고리가 이러한 파편화를 통하여 현실의 붕괴를 드러내는 의식으로서의 수사적인 장치로 사용된다는 것이다.⁴⁹⁾ 벤야민은 우선 그리스 비극과 바로크 비극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전체성과 절대성을 가지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반면, 후자는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⁵⁰⁾ 그리고 고대 비극은 신화를 바탕으로 하며 주인공은 사소한 과오나 우연으로 인하여 불행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희생에 당당히 대면하는 영웅의 면모가 그려진다. 하지만 바로크 비극에서는 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유한성에 기인한 것이며, 주인공은 전설속의 영웅이 아니라 역사속의 왕과 신하들이다. 이들은 자연사에 종속된 요인들로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여 타인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순간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어 본인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낸다.⁵¹⁾ 따라서 바로크 비극에 나타난 왕들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면서 이 권력으로 인하여 자멸하는 순교자가 된다. 벤야민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바로크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을 극단적인 각인 속에서 섬광처럼 밝혀주는 요소이자, 바로크 시대의 정신사적 성향을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알레고리를 주장하였다.⁵²⁾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크의 이중성은 ‘이데올로기(계몽, 낙관주의, 이상주의, 완결성,

49) 양덕규(2012), 전계서, p.6.

50) 김미애, 예술적 인식으로서의 알레고리:벤야민의 알레고리론과 사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1.

51) 최가람, 로베르트 발저의 『아콕 폰 군텐』에 나타난 신화 담론: 발터 벤야민의 신화 개념과 미메시스적 언어철학의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8.

52) 김길웅(1997), 전계서, p.175.

통일성)'가 생산된 근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고 해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현대 미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움과 숭고함, 총체적 형상과 파편적 형상의 이중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⁵³⁾

이와 같이 벤야민은 세계를 보는 방식을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구성물이 아닌 일종의 폐허로 보았으며, 알레고리의 파편적이고 파괴적인 특성으로 인해 총체성의 거짓된 가상이 사라지고 역사의 진정한 진리내용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알레고리는 유기적 총체성과 미를 보유하는 상징에 대립하여 일종의 폐허로 간주하였다.⁵⁴⁾ 즉, 폐허는 한때는 찬란한 역사의 현상이었지만 몰락 과정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순치되어 폐허의 장소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야민은 자연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이 무상하고 가상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⁵⁵⁾

바로크 비극의 전편에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분위기는 현세- 하나의 공허한 세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표상은 우울한 감정을 낳는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세계상에는 본질적으로 알레고리적 기호와 이미지가 담겨있고, 예술가들의 역할은 바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야민은 과거에 존재했던 몰락한 역사의 조각들을 전통적인 의미 상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지닌 텍스트로 부활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크 비극에서 삶의 허무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동시에 읽어내도록 유도하였다.⁵⁷⁾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현실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파편화되고 이질적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는 전체로 읽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근간으로 한 파편으로부터 종합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변증법적인 도구로서의 알레고리의 역할을

53) 양덕규(2012), 전계서, p.6.

54) 신승환, 발터벤야민의 역사인식:비판과 구원의 변증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3.

55) 김영옥, 벤야민의 역사 철학과 미학 이론, 뷔히너와 현대문학, 15, 2000, p.4.

56) 정희은, 바로크적 비극성으로 연출되는 회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6.

57) 김길웅(1997), 전계서, p.194.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방법론에 입각한 알레고리적 예술 비평의 현상 또한 파편 조각들 속에서 구성된다. 알레고리의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알레고리적 인식은 형상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되고 분절된 상태를 모아 이크처럼 조합시키는 방식에서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이다.⁵⁸⁾ 따라서 파편들을 병렬하여 배치하면 각각의 별들이 하나의 별자리와 천체를 구성하듯이 파편들도 그 속에서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얻어내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낱말을 다른 언어의 번역어들과 함께 모아놓으면 그 속에서 하나의 순수한 언어가 발현된다는 벤야민의 언어관과도 일치한다.⁵⁹⁾

이러한 알레고리적 특성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작가가 경험한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들로부터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해체된 가치와 해체로부터 얻어진 파편들의 조합을 가지고 작가의 직관적 방식으로 특징을 지은 후 그것에게 주관적 본질에 의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작품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가능하며, 알레고리가 가지고 있는 ‘애매성’, ‘다의성’ 및 ‘이중성’과 같은 표면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에 작가의 자아를 투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알레고리적 표현은 표현체와 의미체의 불일치에 따른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⁶⁰⁾

2) 폴 드 만의 알레고리 이론

폴 드 만(Paul de Man, 1919-1983)은 벨기에 출신으로 유럽 각국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문학 텍스트를 연구한 학자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

58) 김미애, 예술적 인식으로서의 알레고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8.

59) 최은정(2006), 전계서, p.42.

60) 양덕규(2012), 전계서, pp.7-8.

는데 유럽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⁶¹⁾ 그의 알레고리는 ‘다르게 말하기’라는 수사성의 순환과정으로 정의 된다. 수사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미면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⁶²⁾, 알레고리 관점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이나 언어들을 비유적 수사법을 사용하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관념의 언어와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폴 드 만은 수사성과 알레고리를 유사한 성질의 범주로 파악함으로써 알레고리적 읽기를 해체적 인식의 범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알레고리를 상징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상징은 동일성이나 동일화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신 알레고리는 일치를 위한 향수와 욕망을 표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 차이의 허공 속에 자신만의 언어를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알레고리는 자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비자아와의 환영적 동일시로부터 자아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는 벤야민의 알레고리가 가지는 텍스트나 회화에 신화적이고 역사화된 배경 설정으로 인한 우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폴 드 만이 이어 받은 것이다. 폴 드 만은 유용성과 정직성을 기본으로 하는 알레고리와 달리 상징은 이미지와 실체를 결합하여 어떤 초월적 진리를 암시하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알레고리는 상징처럼 인간의 인식과 실재의 우연성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가 있는 듯 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⁶³⁾

폴 드 만이 규정하고 있는 알레고리는 크게 ‘난해성’과 ‘시간성’이며, 이 두 가지는 모두 ‘불일치성’과 관계를 맺는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차에 따른 오류와 난해한 성질에 따른 오독성의 특성을 갖는다.⁶⁴⁾

61) 최하영, 폴 드 만에 있어서 언어의 수사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5.

62)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577000>(2014.10.18. 검색).

63)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475&cid=41799&categoryId=41800>(2014.12.02. 검색).

1) 난해성

난해성은 알레고리적 기호 자체의 난해함에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적 기호를 해석하는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다.⁶⁵⁾ 폴 드 만의 ‘읽기’란 알레고리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과두어 성당에 있는 지오토(Giotto di Bondone)의 [미덕과 악덕의 알레고리]를 해석하고 자신의 해석을 반복한 러스킨의 일화가 대표적인 난해성의 예가 된다. 러스킨(John Ruskin)은 이 그림 속의 여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자비라고 하면서 신이 그 여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러스킨은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신의 마음을 준 것으로 정정하고 화가의 그림 속에 동작을 설명함에 있어 그 의미와 비유는 즉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폴 드 만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인용된 러스킨의 오독 과정과 프루스트의 이해 방식에 대하여 전형적인 알레고리적 읽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기호로부터 나오는 진실성에 대한 진실과 오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다. 이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들로부터 얻어지는 시간성과 난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르다’의 알레고리적 특성인 ‘다의성’과 ‘애매성’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⁶⁶⁾

2) 시간성

알레고리의 독특한 특징은 시간성이다. 이는 과거에 선행된 기호나 이미지들이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는 것으로, 알레고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넘어 시간차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것들의 새로운 의

64) 최아름(2009), 전계서, p.12.

65) 김내형(2009), 전계서, p.19.

66) 양덕규(2012), 전계서, p.10.

미를 창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전의 이미지나 기호들을 활용하지만 그 이미지 혹은 기호들은 지속적인 반복의 패턴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반복들은 알레고리의 기원적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완전한 다른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⁶⁷⁾

3) 오독성과 오류성

형이상적 인식론은 기만과 은폐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서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독자들을 눈멀게 한다. 따라서 독자 혹은 비평가는 언제나 오독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폴드 만은 이러한 오독(Blindness)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결국 독자-비평가의 일차적 과제라고 보고⁶⁸⁾, 그는 맹목과 통찰(Blindness&Insight)을 통하여 비평가는 스스로의 비평적 전제에 대하여 가장 맹목적인 순간에 최고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⁹⁾ 다시 말해 수사성을 기반으로 한 오독성 및 맹목성은 이미지나 기호 의미 해석으로서의 오류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이미지/기호의 의미를 결정짓는 형이상학적인 인식을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개념에 근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가치하고 과잉 남용이 아닌 새로운 담론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적용된다.⁷⁰⁾ 오류의 전용은 진리를 제공하며, 모든 문학과 철학적 언어의 근본적인 모호성을 해결할 것이다.⁷¹⁾

알레고리의 시간적 요소는 기호들 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폴드 만은 알레고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알레고리적 기호가 다른 기호- 과

67) 최종철(2004), 전계서, p.60.

68) 최종철(2004), 상계서, pp.63-65.

69) 남진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시간성의 수사학' 연구, 상허학보 20, 2007, p. 382.

70) 최종철(2004) 전계서, p66. 재인용 : Stanley Corngold, Error in Paul de Man, The Yale Critics:Deconstruction in America,ed. Aracgodzich, Marti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92.

71) 김내형(2009), 전계서, p.20.

거에 존재하였던 기호와의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알레고리의 시간성으로부터 과거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 시간을 초월한 무의식적 기표들을 의식에 개입하여 본질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영혼계의 ‘기의’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⁷²⁾

3. 바디아트의 개념과 표현기법

1) 바디 아트의 개념

바디아트(Body art)란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과 신체에 물감을 칠하거나 염색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식미를 추구하는 예술을 의미한다.⁷³⁾ 여기에서 장식은 옷이나 보석, 몸에 직접 그린 그림 및 몸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표현을 말한다.⁷⁴⁾ 즉,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 예술을 뜻한다.⁷⁵⁾ 바디아트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 개념 미술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개념 미술의 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이념인 개념(concept)과 실행(process)이라는 두 명제를 전제로 다양하게 전개된 미술 양식이다. 이 중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 대지 미술(Land art, Earth art)에 나타나는 신체를 이용한 일부 형식들과 신체를 표현하는 매체나 주제를 다루는 작업을 지칭한다.

72) 양덕규(2012), 전계서, p.10.

73) 김현진,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33.

74) 이인자, 복식 사회심리학, 수확사 1988, p.49.

75) 문정은,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2003, p.8.

바디아트는 선사시대 벽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장식을 하면서 표현되었는데, 원시 사회에서의 신체 장식은 아름다움의 표현과 종교적인 목적 및 장식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표현되었다.⁷⁶⁾ 이는 아름답게 보이고자하는 장식설과 힘, 용기, 능력과 부를 과시하고자하는 트로피즘(Trophyism),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테러리즘(Terrorism),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바라는 토테미즘(Totemism), 신체의 일부를 강조하여 이성을 유혹하려는 매력을 위한 에로티시즘(Eroticism) 등으로 바디아트의 기원을 보는 것이다. 고대 브리튼 사람들이 녹색으로 자신들의 몸을 염색한 기록이나, 이집트 여인들의 메이크업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바디 아트는 외모를 가꾸는 목적과 다른 부족과의 구별 목적 및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던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세련된 방법으로 면모하게 된다.⁷⁷⁾ 이집트 여인들의 분장은 진보한 문명이 처음 나일강에 출현하였을 때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 동아시아 상류 계층의 여인들에 의해 사용된 분장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된 채색된 얼굴로부터 발달하여 부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더욱 진보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뜨거운 기후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이렇듯 파라오 궁에 거주하던 이집트의 상류, 중류 계층의 여인들과, 아테네 상류 계급인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귀부인들의 신체 장식과 행위는 오늘날의 바디아트의 초석이 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의 바디아트로 이어지게 되었다.⁷⁸⁾

현대의 바디아트는 고대 원시 시대의 주술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자

76)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28.

77) 김민정, 바디아트 마티에르(Mati'ere)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촉각질감 표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7.

78) 김채원, 근육의 움직임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연출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2007, p.10.

신의 심리적, 신체적, 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대 예술로서 표현된 바디아트는 1966년 아트 디렉터인 리트(Rite)에 의해 소개되어 신체 조형예술로서 미용 예술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⁷⁹⁾ 초기 바디아트는 주로 공공장소 등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후로는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담겨진 참고자료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시되었다.⁸⁰⁾ 주로 마조히즘(masochism)에서 착안하거나 정신적 구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을 지양하고 신체와 연관된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작가의 표현 대상이 아닌 행위의 매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70년대에는 신체 자해 등 극단적이며 공포감을 연출하는 개념 미술의 실존 측면을 표현하며 스튜디오에서 비디오를 통해 기록하는 형태를 보였다.

1980년대에는 1960~70년대의 관객과의 소통적 측면이 다시 나타나고,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하여 관객과 소통함으로써 바디아트는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70년대의 신체 미술 경향이 발전하여 신체에 대한 인식이 기존과는 달라지면서 신체의 요소들의 변형과 결합, 현실적으로 표현이 어려운 제 3의 성, 그로테스크적 표현 등 인간의 정신적·예술적 세계를 관념적인 예술 세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신체 표현에 있어 신체의 변형, 결합, 해체 등의 방법을 인체에 직접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오브제를 사용하여 보완 표현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⁸¹⁾

국내에서의 바디아트는 1980년대 말부터 해외에서 바디아트를 접한

79) 강대영, 한국 분장 예술, 지인당, 1988, p.255.

80) 홍세원, 무대분장에 나타난 바디아트의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9.

81) 김금란,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0.

후 귀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그 후 개막식이나 폐막식 등의 여러 문화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⁸²⁾ 1990년대 말에는 홍보, 광고, 패션쇼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켰다.⁸³⁾ 패션쇼에서의 바디아트는 초기에는 의상의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일반적인 화장의 개념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환상적인 분장 과정으로 변모되어 감각적 이미지 전달을 위한 다양하고 독특한 패턴의 바디아트가 얼굴, 팔, 다리 등으로 확대되었다.⁸⁴⁾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바디아트는 사회적, 문화적 정서에서 축제 문화에 한 장르로 발달하였다.⁸⁵⁾ 바디아트 중 바디 페인팅과 타투는 3차원 동적인 형태와 연속적인 이미지로 보이며, 쇼(show)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의상과의 조화를 피하거나 그 의상의 장식 및 소품으로서 바디아트를 사용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⁶⁾ 최근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성을 추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창조활동이자, 기존의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채색에서 탈피한 표현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었다.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재와 재료 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표현을 통하여 조형적 특징을 부각시켜 그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바디 아트는 인간의 신체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공간적인 감각과 시각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4차원의 공간 표현의 조형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⁸⁷⁾

따라서 바디아트는 단순히 인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인체의

82) 강민정, 패션 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7.

83) 김금란(2010), 전계서, p.10.

84) 문정은(2003), 전계서, p.9.

85) 김금란(2010), 전계서, p.11.

86) 김혜연,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단청문양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20.

87) 태동숙,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30.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접목하여 환상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가지고 한층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미에 대한 창조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분야로 다양한 주제와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발전 무궁한 예술의 한 장르이다.⁸⁸⁾

2)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

바디아트 표현은 점, 선, 면, 색등의 적절한 사용이 매우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데⁸⁹⁾,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에는 회화적 기법, 그래픽 기법, 에어브러쉬 기법,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 기법, 오브제 기법,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표현기법 등으로 분류된다.

(1) 회화적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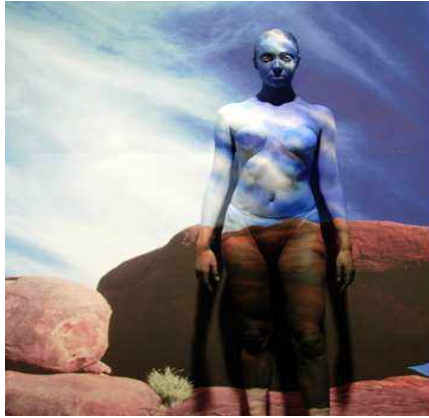
회화적 기법은 인체를 캔버스 삼아 기교나 형식 등의 기법에 의존하지 않은 정서가 반영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문양이나 디자인이 아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⁰⁾ 회화적 기법은 주로 자연물이나 대상을 형상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밀묘사, 관념적 묘사, 약화 등의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여 회화적인 페인팅 기법과 우연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물감을 던지고 뿌리고 흘리는 방법의 액션 페인팅 기법이 있다. 회화적 기법에 주로 사용되는 주제로는 우주, 태양, 꽃, 동물, 식물, 바다 속, 인물 등 다양하며, 이중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⁹¹⁾(그림 1, 2, 3, 4)

88) 김민정(2010), 전게서, pp.8-9.

89) 곽주영,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9.

90) 박정은, 에드바르트 뭉크의 회화적 모티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4.

91) 김혜연(2013), 전게서, p.22.



<그림 1> 회화적 기법 1
출처: www.koreabodypainting.com
(2014.11.03. 검색)



<그림 2> 회화적 기법 2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그림 3> 회화적 기법 3
출처: www.pinterest.com
(2014.12.20. 검색)



<그림 4> 회화적 기법 4
출처: www.pinterest.com
(2014.12.20. 검색)

(2) 그래픽적 표현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은 <그림 5, 6, 7, 8>와 같이 추상적인 대상을 형상화하는 바디아트 기법이다. 그래픽(Graphic)은 ‘도식화 한다’ 혹은 ‘쓰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사실적이고 눈앞에서 보는 듯

한 묘사 및 도형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그래픽 표현기법은 바디아트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거나 단순한 형태의 모티브를 강렬한 색채대비를 이용하여 동적인 리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행위예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델이 물감 위를 걷거나 튕구는 행위, 모델에게 물감을 뿌리는 동작 등을 퍼포먼스로 표현할 때 선택되는 방법이기도 하다.⁹²⁾



< 그림 5 > 그래픽적 기법 1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 그림 6 > 그래픽적 기법 2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92) 최경옥(2009), 전계서, pp.43-44.



< 그림 7 > 그래픽적 기법 3 < 그림 8 > 그래픽적 기법 4
출처: www.pinterest.com (2014. 12 20 검색) 출처: www.pinterest.com (2014. 12 20 검색)

(3) 에어브러쉬(Air- Brush) 기법

공업용 콤프레셔(compressor)로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여 물감을 일정하게 분사하는 에어브러쉬 건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에 채색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기법으로 최근 바디아트에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라데이션이 가장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그림9, 10)

에어브러쉬 건은 중간 부분에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다. 손을 떼면 버튼은 스프링 작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되돌아가 공기 공급이 중단되고, 버튼을 다시 앞으로 당기면 물감이 나오는 노즐이 열리면서 브러싱(brushing) 상태가 되면서 고운 입자의 상태로 채색된다.⁹³⁾

에어브러쉬 작품 제작 중 가장 스킬을 요하는 작업은 스텐실을 이용하

93) 공영희,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6.

는 방법으로, OHP필름과 같은 투명 필름이나 종이를 미리 원하는 디자인으로 문양을 내어 인체에 밀착시킨 후에 에어브러쉬 건의 버튼을 조작하여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주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레이스, 어망, 철망 등의 재료를 스텐실로 사용하면 다양한 결 무늬를 표현할 수 있다. 에어브러쉬 작업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림 9, 10, 11, 12>처럼 정확하고 깔끔한 처리, 부드러운 음영, 투명감 있는 색조의 표현,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 명암의 대비, 작업 시간의 단축으로 손으로 하던 페인팅 기법보다 더 쉽게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⁹⁴⁾



< 그림 9 > 에어브러쉬 기법 1
출처: Karala Barendregt, Bringing body painting to life, p. 161



< 그림 10 > 에어브러쉬 기법 2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94) 최희정, 오브제를 응용한 바디아트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1.



< 그림 11 > 에어브러쉬 기법 3
출처: www.koreabodypainting.com
(2014.12.20. 검색)



< 그림 12 > 에어브러쉬 기법 4
출처: www.dibf.co.kr(2014.12.20. 검색)

(4)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 기법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은 <그림 13, 14, 15, 16>과 같이 바디 페인팅 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 바디아트 기법이다. UV 발광 물감은 일반 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UV라이트(블랙라이트)에서 더욱 선명한 색상을 발광하여 UV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보여진다. 이 물감은 일반 수성 바디 페인팅 물감과 겸용할 수 있으며, 일반 물감으로 페인팅한 후 UV 발광 물감을 그 위에 채색한다. 하지만 두 가지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면 물감의 발광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발광의 정도를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⁹⁵⁾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 기법의 작품은 다른 바디아트보다

95) 최경욱(2009), 전계서, p.44.

화려한 성질 때문에 무대 공연이나 쇼 연출에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UV라이트의 와트(Watt) 수치에 따라 색상의 선명도가 좌우되고, 다른 잡광 보다는 UV라이트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 크다. 이 기법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하의는 블랙타이즈를 착용하고 상체에만 페인팅하기도 한다.⁹⁶⁾ UV 발광물감으로 작업할 시에는 물감의 성질과 효과, 라이트가 작용하는 범위, 무대의 크기를 모두 사전에 계산해야한다.⁹⁷⁾



< 그림 13 >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1 < 그림 14 >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2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96) 최경옥(2009), 상계서, p.44.

97) 강대영(1988), 전계서, p.260.



<그림 15>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3 <그림 16>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4
출처: www.pinterest.com (2014.12.20. 검색) 출처: www.pinterest.com (2014.12.20. 검색)

(5) 오브제를 활용하는 표현기법

물감 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설치를 통한 작업을 통한 미술 작품과 같이 신체에 무해한 머드팩, 석고, 종이, 깃털, 비닐, 스톤, 레이스, 금속, 직물등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림 17, 18, 19, 20>과 같이 풍부한 표현력과 새로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감(Texture) 표현을 오브제 표현 기법이라고 한다.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필수적인 조형 요소로서 실제로 물체의 표면이 갖는 특성이나 안료의 성질, 물적 대상의 양감 등을 이용하여 촉각, 시각적인 환기 효과를 나타낸다.⁹⁸⁾

바다아트에서의 질감 표현은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촉각적 질감이란 대상의 표면이 손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는 감각을 의미하며, 딱딱한, 거친, 매끄러운, 날카로운, 따뜻한, 차가운 등의 느낌

98) 임정임, 바다아트의 질감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4.

의 질감이다. 시각적 질감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색과 명암, 문양으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질감 표현을 의미한다. 주변의 조형물들을 이용하여 신체와 하나의 작품으로 어울리게 된다.⁹⁹⁾



< 그림 17 >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1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 그림 18 >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2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99) 최성진, *옵아트*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디지털 기법 사용을 중심으로-, 성신 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16-17.



< 그림 19 >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3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 그림 20 > 오브제를 활용하는 기법 4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6)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표현기법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표현기법은 바디에 직접적으로 페인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21, 22, 23, 24>과 같이 특정한 형상을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투영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바디아트의 기법이다. 이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디에 투영할 영상을 먼저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 후 영상과 어울리는 모델을 선정한다. 어두운 공간에서 모델을 세운 후 촬영한 영상을 투영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이때 빛으로 투영되는 촬영물의 모티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벽면을 검게 만들면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다.¹⁰⁰⁾

100) 최경옥(2009), 전제서, p.46.



< 그림 21 >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1 < 그림 22 >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2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출처: www.pinterest.com (2014.11.03. 검색)



< 그림 23 >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3 < 그림 24 >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4
출처: www.pinterest.com (2014.12.20. 검색) 출처: www.pinterest.com (2014.12.20. 검색)

(7) 디지털 기법

21세기의 첨단 테크놀로지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예술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디지털 예술은 예술과 기술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과학과 예술의 휴전, 하이브리드화를 야기하였다. 디지털 미디어로 대표되는 컴퓨터 아트와 네트워크, 가상공간까지 그 표현의 영역으로 하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예술의 개념, 예술가의 행동 양식, 관중의 관점 등 광범위한 범주의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다.¹⁰¹⁾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디자인 과정상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어 발상 및 표현, 드로잉,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CAD, CAM의 응용 등의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편리하면서도 작업 시간의 단축으로 반복적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D 디지털 기법은 <그림 25, 26, 27, 28>과 같이 신체 자체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후 그 굴곡된 형상에 따라 그 위에 작가가 의도한 이미지를 무늬와 같은 문신 기법을 통해 신체에 그대로 새겨내는 정교한 컴퓨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법이다. 3D 그래픽 작업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프린트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투사하여 무늬와 인간이 일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3D 디지털 바디아트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스를 디지털 프린트, 빔 프로젝터, 모니터 등의 여러 출력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¹⁰²⁾

101) 최성진(2014), 전게서,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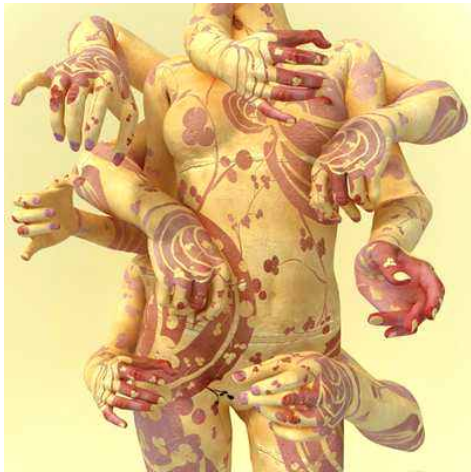
102) 공영희(2007), 전게서, p.42.



< 그림 25 > 디지털 기법 1
출처: www.onethousandandonedreams.com



< 그림 26 > 디지털 기법 2
출처: www.kimjoon.simspace.com



< 그림 27 > 디지털 기법 3
출처: www.kimjoon.simspace.com



< 그림 28 > 디지털 기법 4
출처: www.kimjoon.simspace.com

Ⅲ.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

크레이그 오웬스(Craig Owens, 1950-1990)는 알레고리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을 확장된 설명방법으로서 1980년에 『알레고리적 충동 :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향하여』에 기고하였다. 그는 모더니즘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알레고리를 예술의 기법·예술 태도·과정·지각활동으로서 현대미술에서 보이는 다양한 알레고리적 충동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¹⁰³⁾ 하지만 알레고리는 거의 2세기 동안 배척당한 개념으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알레고리를 개입시킨다는 것은 금단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같았다.¹⁰⁴⁾

오웬스는 문학과 미술의 분리를 주장한 그린버그식 시각 예술이 알레고리의 읽기 속성을 배척해왔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읽기가 새롭게 부각된 담론의 형식으로 이행됨에 따라 알레고리는 시각과 언어적 요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형식보다 사회·문화·역사 등의 카테고리에 포괄한 내용의 이해를 우선시 하였으며, 알레고리적인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추출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알레고리는 본질적으로 ‘보기’가 아닌 ‘읽기’의 속성으로 간주하였다.¹⁰⁵⁾

오웬스는 벤야민의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읽는 도구로서의 알레고리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는데, 우선적으로 벤야민의 알레고리의 바탕이 되는 바로크의 개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적 현상을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103) 황성근, 묘(貓)를 소재로 한 알레고리적 표현 연구-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7.

104) Craig Owens,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Postmodernism, Beyond recognition: 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52.

105) 박지우(2011), 전제서, p.8.

이는 벤야민이 주로 언급한 “바로크”는 기술시대, 상품화, 대중매체로 표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은유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크에서 나타나는 미학적 사유의 파편화, 불일치, 알레고리와 같은 측면이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을 서로 연결해주는 공통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로크는 통일적, 정형화된 르네상스에 반발하는 양식으로 비정형적이고 비균형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는 다시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목숨들을 외면한 채 진보의 결과에만 집착하던 계몽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통일성을 지향하는 역사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바로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벤야민의 바로크는 완결되고 폐쇄적이며 하모니를 이루는 모더니즘의 사조에 반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¹⁰⁶⁾.

벤야민으로부터 알레고리는 최초의 파편적인 것으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특성을 부여받았고, 오웬스는 이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특징인 주체의 해체와 능동적인 해석자로서의 관람자 역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벤야민이 파편으로부터 의미의 연관성을 읽어내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해체적 속성으로부터 해석 도출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¹⁰⁷⁾ 또한 벤야민의 이론에서 알레고리적 작가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작가가 알레고리적 장치를 만들고 관람자가 행하는 역할과 비슷하다.¹⁰⁸⁾

오웬스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알레고리적 특성을 전개하면서 알레고리적인 작가의 역할은 그것에 자의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106) 이령(2009), 전계서, p.18.

107) 최종철(2004), 전계서, p.2.

108) 최은정(2006), 전계서, p.46.

고 주장하면서 벤야민의 기표와 기의의 의미적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전통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을 해체시켜 전혀 다른 의미의 텍스트로 변환한다고 점에서 벤야민의 알레고리 이론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였다.¹⁰⁹⁾ 그리고 비고정적인 맥락들이 중차된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에서 다의적인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은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의 핵심이며, 현대 알레고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알레고리적인 작가로 하여금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의미를 찾고, 그 전통적인 의미를 해체하고, 그 위에 사회문화적 범주를 중첩시켜놓은 것을 관람자가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⁰⁾

알레고리에서 시각 이미지들은 해독되어야 할 문자로 제시되고 단어들은 시각적 현상으로 간주됨으로써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의 호환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언어적인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중첩되는 모든 경우에 모두 나타나고,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의해 해석된다.¹¹¹⁾ 이에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¹¹²⁾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겹쳐지는 과정에서 이미지 그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만 의미가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의 본래 의미를 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의미로 교체되고 보충된다. 이는 바르트(Barthes)가 텍스트를 저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글쓰기들이 뒤섞이고 충돌하는 다차원적 공간이라고 규정한 것과 담론 속의 파편들을 모아 그 속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알레고리의 속성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알레고리적 작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틀에서 규정

109) 최아름, 재현을 통한 알레고리적 회화 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1.

110) 최은정(2006), 전계서, p.47.

111) 박수진, 포스트모던 알레고리 이미지 패션의 다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마틴마르지엘라 패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6.

112) 이령(2009), 전계서, p.19.

되어 왔던 기존의 작품을 해체하고 이를 파편화된 상태로 제시함으로써 해석의 다원적 공간을 형성한다.¹¹³⁾ 알레고리가 본질적으로 파편임을 드러내며, 이러한 파편화된 알레고리적 작품은 그것을 텍스트로 보는 행위를 통해서만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를 읽어내는 방식에 따라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상형문자와 유사하며, 수수께끼 그림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알레고리의 추론적인 성격으로 인해 관람자는 이미지를 시각적인 것과 읽는 행위를 통해서 해석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레고리는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의 차연 개념과 유사하다.¹¹⁴⁾ 의미가 기호들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소쉬르의 명제에 따라 기호는 실제와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추출되며, 이미 나타난 기호는 앞으로 나타날 기호들과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¹¹⁵⁾

그러나 데리다는 그 의미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잡아둘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해석의 흐름의 일시 정지 상태라고 간주하였다. 결국 기호의 의미는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이 라는 두 차원의 영향을 받아 최종적 의미가 끝없이 연기되는 것이다. 이렇듯 의미 작용의 끝없는 변화를 나타내는 차연은 알레고리의 끊임없이 교체되고 보충되는 의미의 발생 과정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¹¹⁶⁾

오웬스의 알레고리는 불완전한 것, 단편적인 것, 미완성의 것과 끊임없이 친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알레고리의 근본적인 충동과 해체의 연관

113) 박지우(2011), 전개서, pp8-9.

114) 황진아, 동시대 미술에서 살펴본 소통의 표현으로서의 알레고리(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1.

115) 박신미, 차연적 놀이로 본 패션 스타일의 가변성,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9.

116) 강덕봉, 후기 현대 인체조각의 알레고리 해석을 통한 이미지 차용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6.

성을 나타낸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행해지는 해체적인 공격은 모더니즘의 구조적인 상징성, 총체성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읽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고 보충되는 분열적이고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¹¹⁷⁾ 알레고리적 작품에서도 이야기되는 담론의 형식은 바로 해체적인 순환 과정과 수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¹¹⁸⁾

이렇게 오웬스는 현대 미술에서 보이는 차용, 장소 특수성의 강조, 일시성, 축적, 논리적 성격, 잡종 교배와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알레고리적 충동에 의해 자극되어 창조된다고 보았다. 이는 각기 독립적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이해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의미를 보충하고 교체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람자라는 외부적 요소를 함께 개입시킨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과 연관하여 파악해야한다.¹¹⁹⁾ 따라서 알레고리적인 가치를 작품에 내포시키는 것은 작가이지만 그것에 다양한 의미를 부가하는 주체는 관람자이다. 알레고리적인 작품은 이질적인 요소의 나열을 통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로 하여금 관람자는 암시된 의미의 탐색 과정에서 해석하고 성찰하는 행위를 행하여 해석 결과에 자신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알레고리의 기본적인 구조이다.¹²⁰⁾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은 차용, 장소 특수성, 반복 축적의 구조 등의 양상들로 현대 미술 작품의 내적구조에 적용된다.

1. 차용

117) 박수진(2006), 전계서, p.17.

118) 강덕봉(2007), 전계서, p.16.

119) 황진아(2013), 전계서, p.11.

120) 황성근(2011), 전계서, pp.17-18.

알레고리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갖는 연계성 중 하나는 이미지의 차용 현상을 들 수 있다. 차용은 미술사 전반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등장한 새로운 이미지와 융합하거나 기존의 이미지에 작가가 원하는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알레고리적 의미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의미와 작가가 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인 새로운 의미가 중첩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의미를 말한다.¹²¹⁾ 이때 이미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아우라는 사라지고 모호하게 되고, 알레고리적 작품에서 알레고리는 ‘보충물’ 혹은 ‘부가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¹²²⁾

오웬스는 이러한 차용 현상을 트로아 브라운투호(Troy Brauntuch), 셰리 레빈(Sherrie Levine) 등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영화 스틸, 사진, 드로잉 등을 차용하고 각색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작가들로 이들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복제된 것이지만 기존의 의미가 제거되어 버린 불투명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¹²³⁾ 하지만 이전의 의미를 대체한 알레고리는 그 자체가 부가물이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알레고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술 해석 방법에서 외면당해 온 이유이자 새로운 미술 양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유이다.

오웬스는 이러한 차용 방법의 선구자로 <그림 29> 뒤샹(Marcel Duchamp)의 <샘(Foundation)>을 예로 들었다. 소변기에 샘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것을 미술관에 전시한다는 것은 소변기라는 사물이 갖고 있던 원래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작가가 원하는 창의력을 동원하여 새롭고 유일한 것을 창조한다. 이외에도 <그림 30, 31, 32>과 같이 뒤샹의 알레고리적 전략은 작품 속에 암시적으로 내재 되어 있는데, 이는 작품의 메

121) 송병집,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 나타난 예술적 인식으로서의 알레고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68.

122) 손지연, 현대미술관 알레고리 해석:고전적 알레고리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p.41.

123) 황진아(2013), 전제서, p.12.

시지를 관람자들에게 관독 혹은 해석하게 하는 권유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뒤샹의 작품은 언어 기호의 파괴, 의미와 관련된 자의성이 나타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은 작가에 의한 단순한 메시지 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람자의 읽기 행위가 뒤섞인 담론의 공간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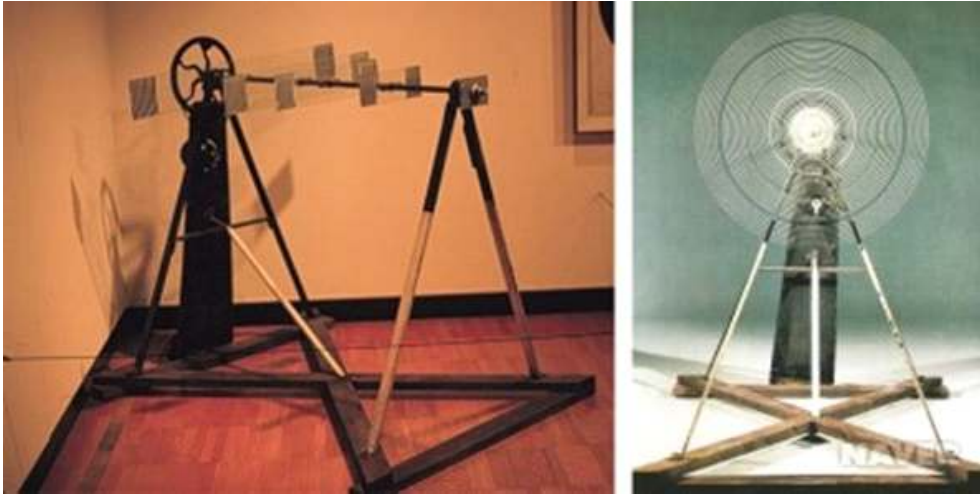


< 그림 29 > 샘(Fountain)
출처: www.naver.com(2014.12.20. 검색)



< 그림 30 > 자전거바퀴(Roue de bicyclette)
출처: www.naver.com(2014.12.20. 검색)

124) 로버트 린튼, <<20세기 미술>>, 윤난지 역, 서울:예경, 1999, p.145.



< 그림 31 > 회전하는 유리 패널(1920)과 패널의 회전 이미지
 출처: www.naver.com(2014.12.20. 검색)



< 그림 32 > L.H.O.O.Q. 수염난
 모나리자(L.H.O.O.Q. La Joconde)
 출처: www.naver.com(2014.12.20.
 검색)

차용의 방법은 셰리 레빈(Sherrie Levine)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뒤상이 사용한 전략을 굴절시켜 사용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복제 담론과 연계시켰다. 이는 복제된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작품 자체를 이미 하나의 복제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알레고리의 속성을 갖는다.¹²⁵⁾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원본성의 신화를 무너뜨리며, 복제의 속성으로 인해 원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사진과 영화가 주목받는 것이다. 작품의 유일성은 복제의 개념과 대치되며, 관람자는 각자의 특정한 조건 속에서 그것들을 접하게 됨에 따라 복제품은 계속 재생산된다. 이에 원본과 사본, 재현과 현실의 간극은 사라지고 복제품은 오리지널의 시간적, 공간적 현존성에서 오는 아우라(Aura)는 사라지고, 나아가 예술 개념 자체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¹²⁶⁾

셰리 레빈이 유명한 미술가들의 사진 작품을 재촬영하는 리포토그래피(Rephotography)의 방법으로 차용의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녀가 차용한 사진들도 사실 필름과 안료로 이루어진 실재를 복제한 가상물에 국한된다. 이렇듯 ‘어떤 구성, 변형, 첨가, 종합도 없는’ 레빈의 노골적인 도둑질¹²⁷⁾은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운과 의미를 제거시킴으로써 작품 자체가 알레고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레빈의 작품은 사회적 의미 구조 안의 기호로서 작동하는 힘을 드러내고 작품 표면에 끊임없이 겹쳐지고 뒤섞이는 텍스트의 짜임을 형성하여 그 의미가 유동적이고 미완성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한다.

이러한 사진 작업에서의 차용 방법은 신디 셔먼(Cindy Sherman)도 이용하였는데, 그녀는 할리우드의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로맨스물, 광

125) 황성근(2011), 전계서, p.20.

126) 발터벤야민(1983), 전계서, p.202.

127) 윤난지, 현대 미술의 풍경, 서울:한길아트, 2005, p.53 재인용 : Douglas Crimp, “Appropriating Appropriation”, On the Museum’s Ruins, The MIT Press, 1993, p.129.

고 등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분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주체와 객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모방과 동조를 야기하는 미디어에 의해 투사된 여성상의 모델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수사성이자 비유로 작용된다.¹²⁸⁾ 셔먼의 작품은 예술 비평의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술 비평 행위를 추구하며, 창조성 및 예술적 시각의 신화와 그 미적 이미지를 해체하는 메타 예술의 측면을 가지며, 자신의 작업에 자신을 투입시킴으로서 해체의 담론을 구체화한다.¹²⁹⁾

셔먼의 작품 안에서 오웬스의 이론과 같이 ‘불가능한 것들의 공모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모방성을 고발하면서 그 자신도 모방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여 알레고리적인 양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방의 모방’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셔먼의 작업은 ‘수사의 수사’인 알레고리의 정의에 상응하는 것이며, 기표와 기의 간의 거리를 드러냄으로서 그 자체가 비평적 행위의 대표체가 되는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다.¹³⁰⁾

알레고리 해석을 통한 이미지 차용 연구는 알레고리적 속성을 지닌 혼성모방(Pastiche), 패러디(parody) 등의 방법 등과 함께 후기 현대 미술에서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된다.¹³¹⁾

2. 장소 특수성

오웬스가 언급한 알레고리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두 번째 연관성

128) Craig Owens(1992), 전게서, p.84.

129) 로잘린드 크라우스, 사진과 모조성에 대한 소고, 현대 미술의 지형도, 이영철 역, 서울:시각과 언어, 1998, p.360.

130) 최종철(2004), 전게서, p.114.

131) 황성근(2011), 전게서, p.20.

은 장소 특수성이다. 이는 그것이 놓여진 장소를 강조함으로써 작품과 장소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웬스는 폐허에서 느껴지는 알레고리의 멜랑콜리적 시선을 매개로 한 현대 미술에서 장소성과 알레고리의 연관성을 지적했다.¹³²⁾

대지 미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놓인 환경과 순치되면서 소멸한다는 점에서 사물의 일시성과 덧없음이라는 의미 표출의 성질이 나타난다.¹³³⁾ 또한 로버트 스미드슨의 작품과 같이 그것이 놓인 장소의 지형적 특수성과 역사성, 그에 따른 심리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장소를 읽어내는 시도함에 따라 작품이 장소성에 연루됨으로써 그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지 미술은 자연과 인위적인 산물인 작품의 병치를 통해 알레고리적 의미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벤야민이 폐허를 알레고리와 동일시하고 몰락한 폐허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역사적 경험과 슬픔이 깃든 멜랑콜리적 시선을 통해 사물은 본래의 의미에서 떼어내 새로운 의의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폐허는 인간의 업적이 재흡수 되는 곳이며 붕괴와 쇠퇴의 과정을 의미한다. 알레고리와 폐허와의 연관성에 기인하여 대지 미술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존재로써 폐허를 바라보는 멜랑콜리적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설치된 환경과 합쳐지면서 알레고리적인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¹³⁴⁾

로버트 스미드슨은 <그림 33- 36>처럼 궁극적으로 자연에 작품을 순치시키는 힘을 작품의 일부로 인정했다. 그는 작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에 맡겨진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결국 부식되고 침식되어 일정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게

132) 황성근(2011), 전게서, p.22.

133) 신정아,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패러디와 패스티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23.

134) 박수진(2006), 전게서, p.22.

된다고 보았다.¹³⁵⁾ 이는 벤야민이 언급한 폐허의 역사적 도정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미드슨의 대지 미술은 장소에 필연적인 맥락에 연루되고, 그것은 사회·역사·생태의 일부가 되어 벤야민이 언급한 폐허의 알레고리가 스미드슨의 작품을 통해 부활되는 ‘언어의 분출’로 대치된다. 오웬스는 이를 통해 모더니즘에 의해 침묵의 형식에 매몰되어 있던 미술이 말을 하게 되었음을 주시하였다.¹³⁶⁾

로버트 스미드슨과 같은 장소 특수성을 지닌 대지미술의 작가들은 과거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기념비의 이미지를 거대한 지형적 특성과 작품이 지닌 일시성이 주는 심리적 여운으로 대체시킴으로써 20세기의 죽음의 알레고리로 부활시킨다.¹³⁷⁾



<그림 33> 로버트 스미드슨의 나선형 제방(Spiral Jetty)
출처: <http://www.musicofsound.co.nz>(2014.11.04. 검색)

135) 이승아, 현대 남성니트의 알레고리적 표현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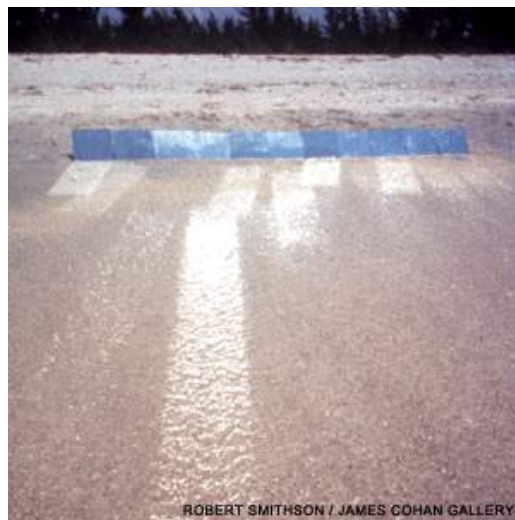
136)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한길아트, 2005, p.131.

137) 손지연(2007), 전계서, pp.41-43.



<그림 34> YUCATAN MIRROR DISPLACEMENTS (1-9) & MIRROR DISPLACEMENT (GRASSY SLOPE)

출처: www.robertsmithson.com(2014.12.20. 검색)



<그림 35> Mirror Shore(1969)

출처: www.robertsmithson.com(2014.12.20. 검색)



<그림 36> Forking Island(1971) & Bingham Copper Mining Pit-Utah Reclamation Project(1973)

출처: www.robertsmithson.com(2014.12.20. 검색)

3.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

오웬스는 알레고리적 작품이 갖는 패러다임을 수학적 수열이 가지는 특성과 연계하여 현대미술과 알레고리를 설명한다.¹³⁸⁾ 예를 들어 사진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을 제시하는 조각난 현실의 단편들이며, 이는 어떤 전체로서의 총체성이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써 사진 조각들을 무수히 모아놓은 포토몽타주는 알레고리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파편들의 병렬과 배치에 따른 다양한 조합은 끊임없는 알레고리적 의미의 치환 과정을 나타내며, 파편화된 구성물들은 현실에서 떨어져 나온 비유기적인 조각으로 완전히

138) 김향자, 권미정,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뷰티스타일의 알레고리적 표현과 미적 특성 연구, 한국미용학외지, 17(5), 2012, p. 858-869.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¹³⁹⁾ 포토몽타주에서 보이는 누적과 병렬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텍스트들을 병렬 배치하면서 잠재된 의미 있는 공식을 알레고리의 특성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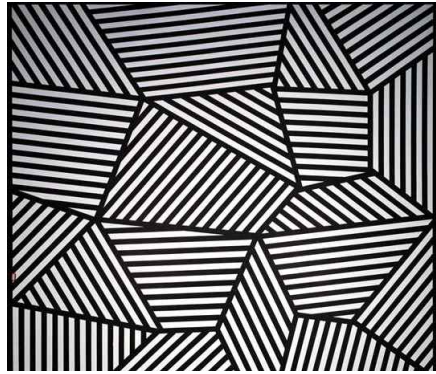
이러한 반복적인 포토몽타주의 작품을 선보인 미국의 미니멀리즘 대표작가인 솔 르윗(Sol Lewitte)은 추상표현주의를 배척하고, 인식과 언어 및 반복의 문제와 관심을 갖았다. 그의 작품은 큐브에서 출발한 모듈 구조와 수학적 규칙에 의한 반복과 대칭으로 나타난 시각적 질서를 탐구하였으며, 일체의 장식을 배제한 가장 본질적인 골격만으로 이루어진 입방체 구조물은 최소의 단위를 이용하여 규칙과 논리에 의해 무한의 형태로 환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1968년부터 시작한 “Wall Drawing” 연작은 개념 미술의 작품 성향을 잘 드러내었으며, <그림 37, 39>와 같이 그의 작품을 흑과 백으로 된 직선을 사용하여 심오한 어떤 주제로서의 개념이 아닌 제작의 실행과정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 언어 및 규칙, 논리를 나타내었다. 이는 체계적인 모듈 방식을 고수하여 복사본에서도 곡선과 작품의 정확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후 그의 작품은<그림 38, 40>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육면체, 구, 삼각형 및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등의 기본적인 색채와 선 등 최소한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¹⁴⁰⁾ 그리고 반복 요소의 형태, 크기, 개수, 추상성의 여부, 반복체계(동일, 점중, 점감), 반복 형식(병렬, 동심원, 중식)등의 여러 기준에 따른 복합적 시각 작용의 결과로서의 작품을 선보임에 따라 알레고리의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¹⁴¹⁾ 또한 작은 격자 안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각각 독립된 형태로 보이지만, 전체 화면을 통하여 각각의 이미지가 통합

139) 김향자, 디지털 패션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45

140) 두산백과, “솔 르윗”,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76162&cid=40942&categoryId=34393>(2014.12.02. 검색)

141) 이상미, 큐브(Cube)를 통한 반복과 중첩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8.

되어 또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미지 해체를 통한 파편화의 재구성이라는 현대 알레고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²⁾



<그림 37> 솔 르윗(Sol Lewitte)의
Wall drawing #565
그림출처: www.pintere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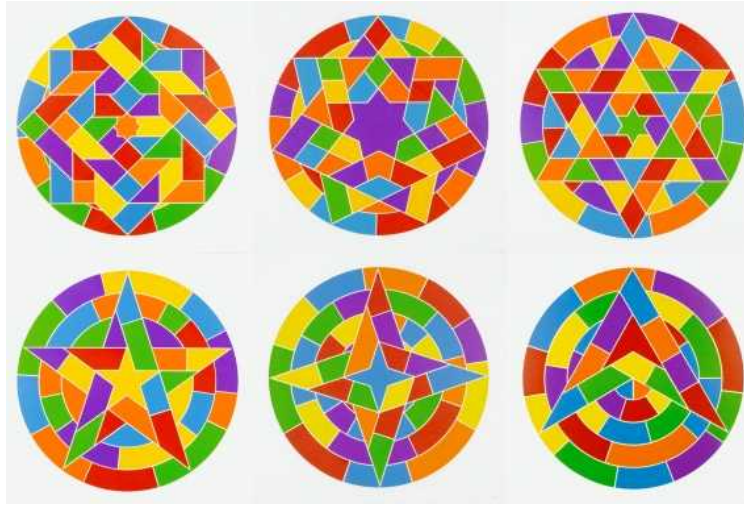


<그림 38> 솔 르윗(Sol Lewitte)의 Kippah
그림출처: www.pinterest.com



<그림 39> 솔 르윗(Sol Lewitte)의 Wall drawing #879 Wake
up Doopy
그림출처: www.pinterest.com

142) 이민우, 이미지 해체를 통해 나타난 파편화의 재구성-본인작품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6.



<그림 40> 솔 르윗(Sol Lewitte)의 Tondo Stars Plate #1-6
그림출처: www.archeus.co.uk

알레고리적 작품은 그 종합적인 성격으로 미적인 영역의 경계를 이탈할 수 있으며, 장르간의 혼성은 잡종교배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게 된다.¹⁴³⁾ 이와 같이 알레고리적 작품은 연관성 없는 오브제들의 병치,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의 병치 혹은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병치 등으로 성격이 완전하게 다른 구체적·추상적 개념들을 동시에 제시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그 교집합 속에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¹⁴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알레고리는 사건들의 수평적·횡적 구조적인 연속선상에 대상과의 일치 여부를 수직적·종적 구조적인 독법(讀法)을 부가한다. 이는 언어의 은유적인 축을 언어의 환유적인 영역에서 투사하는 초현실주의의 방식에 빗대어 볼 수 있다. 로만 야콥슨은(Roman Jakobson)은 이러한 투사를 가리켜 “시적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은유를

143) 김향자(2013), 전계서, p.47.

144) 황성근(2011), 전계서, p.23.

운문과 낭만주의로 환유를 산문 및 사실주의와 연관 지었다. 하지만 알레고리는 은유와 환유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양식이나 장르간의 미적 범주를 넘나드는 특징을 현대 미술의 혼성성과 궤를 같이하여 열린 구조의 확장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¹⁴⁵⁾

알레고리는 가장 객관적인 자연주의를 가장 주관적인 표현주의로, 가장 확고한 사실주의를 가장 초현실주의적으로 장식적인 바로크 양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물이나 오브제들을 모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주체와 사물이 조합되고 갑자기 사물의 의미가 부가되는 벤야민의 성좌의 이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된다. 표현요소 간의 비례와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고전 미술에서 벗어나 이질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의 병치를 ‘텍스트적 알레고리(알레고리적 텍스트)’라고 칭할 수 있다.¹⁴⁶⁾ 이는 각각의 의미가 상호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있으며, 상호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그들의 유기성을 위한 논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데, 조합된 오브제들은 그저 관람자들이 분석하고 해석될 알레고리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알레고리적 작품들은 가려진 다의미의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¹⁴⁷⁾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예술과 바디 아트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외적인 표현성과 내적인 가치를 함께 읽으면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는 다원주의적인 포스트모던과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알레고리이기 때문이며, 특히 크레이그 오웬스는 현대 미술의 파편화된 이미지를 분석하는 개념 틀로서 알레고리를 통해 체계화시키고 개념을 잘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5) 최아름(2009), 전게서, p.16.

146) 황성근(2011), 전게서, p.24.

147) 강덕봉(2007), 전게서, p.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레고리를 분석의 기초로 삼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포스트모던 예술을 주제로 하여 재구성한 바디아트 작품의 분석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IV.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적용한 작품 분석

1. 제작의도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과 함께 나타난 알레고리 이론은 하나의 관철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징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실질적인 예제로 사용된 작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재해석하였다.

첫 번째 특성인 차용에서는 마르셀 뒤샹의 <샘(Foundation)> 작품을 재구성하였다. 뒤샹의 레디메이드가 기계에 의해 대량생산되고 대체할 수 있는 복제품들을 무관심하게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사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현실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도 대치되는 이미지, 복제된 사진들과 같다. 오웬스는 작품의 형식적 완결성을 이루지 않고 작품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뒤샹을 현대 시각 예술 분야에서 알레고리의 선구자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담론 형식으로서 이행을 알레고리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성스러운 고전작품을 통속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치시키거나, 언어의 음성과 의미간의 치환을 통해 유희를 이용하여 천박한 농담을 던짐으로서 뒤샹의 작품은 알레고리의 대상이 된다.¹⁴⁸⁾

두 번째 알레고리의 특성인 장소 특수성에서는 대지 미술 아티스트인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on)의 <나선형 제방(Spiral Jetty)>과

148) 박수진, 포스트모던 알레고리 이미지 패션의 다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마틴마르지엘라 패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7.

<Yucatan Mirror #1-9>를 재구성하였다.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의 밑바닥의 소용돌이를 그 지방 설화에 근거하여 창안한 작품으로 침식의 과정이나 자연의 순응까지 작품의 이해에 포함하였으며, 시간과 덧없음, 일시성과 20세기의 죽음의 알레고리를 상징하고 있는 작품이다.¹⁴⁹⁾ 그리고 <Yucatan Mirror #1-9> 작품은 거울들을 연속적으로 찍은 것으로, 거울은 실제 거울이자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념과 추상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은 전치(Displacement)의 도구이며, 인간의 의식과 비슷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무언가를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의 분리(소외, 전치)를 깨닫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¹⁵⁰⁾

로버트 스미드슨은 장소와 비장소의 개념에 관심을 두고, 실제의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와 그것의 재현을 나타내는 비장소를 구분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개의 거울이 여러 번 전치된 것은 시간의 추이와 연관성을 가지며 벤야민이 언급한 폐허에 대한 알레고리적 숭배와 신화로부터의 발상 및 주변과의 물리적인 관계가 융합되어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¹⁵¹⁾

마지막으로 알레고리의 세 번째 특성인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에서는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아티스트인 솔 르윗(Sol Lewitte)의 작품인 <Wall drawing> 시리즈와 <Tondo Plate # 1-6>으로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솔 르윗의 작품은 기본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작품 자체만을 표현하고 근원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반복적이며 주술적인 전략에 대한 관점은 강박증을 통해, 그리고 강박증을 넘어 시간에 대한 기이한 종류의 명상을 추구함에 만듦에 따라 개념 미술 전반에 중요한 흐름을 창출하게 된다.¹⁵²⁾ 솔 르윗의 작품에 대하여 크레이그 오웬스

149) 박수진(2006), 전게서, p.22.

150) 윤정숙, 개념미술의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33-34.

151) 윤정숙(2004), 전게서, pp.31-32.

는 알레고리적 충동을 “하나 다음에 다른 하나”를 단순히 배치함으로써 병렬적인 작품을 구성하는 축적의 전략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솔 르윗의 작품은 구조를 연속체로 투사함으로써 수사학에서 알레고리가 전통적으로 계속되는 연속물 속에 단일한 은유로 정의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불완전한 정육면체를 관람자들로 하여금 상상을 통하여 가장자리를 완성시키고 다양한 정육면체의 개념에 도달하도록 하였다.¹⁵³⁾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적용한 작품 디자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52) 이민우(2011), 전계서, PP.10-11.

153) 윤정숙(2004), 전계서, PP.33-34.

<표 1>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이론을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분류	구분	작품	작품사진	디자인 스케치	색채	페인팅 재료
차용		MARCEL DUCHAMP의 샘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헤어장식
	장소의 특수성	Robert Smithson”의 나선형 제방 (Spiral Jetty)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Robert Smithson”의 Yucatan Mirror (1-9)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헤어장식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		S O L LEWITT”의 Wall drawing 630, 631, 1240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S O L LEWITT”의 Tondo Stars Plate 1-6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2. 작품 제작

1) 작품 I 차용을 재해석한 바디아트

(1) 디자인 의도

작품 I 은 뒤상(Marcel Duchamp)의 <샘(Foundation)>을 인체에 적용하여 인체의 구조와 변기를 결합한 형태로 <표 2>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뒤상의 샘은 레디 메이드(Ready Made)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데, 이는 기존의 이미 기성화된 제품에 작가의 새로운 의도를 첨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내포한 작품이다. 기존의 더럽고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던 변기가 샘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결합된 것처럼, <그림 41>의 작품에서는 인체의 대사과정과 연관 지어 변기를 비유하여 이미지의 차용 현상을 표현하였다. 이는 자연에 속하는 인체위에 샘을 재현 한 것으로, 일련의 자연과 인체가 가지는 순환과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42>에서는 고정되어있는 형태의 기성품에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가변성을 부여함에 따라 역동적이며, 다양한 움직임과 관련된 변화 가능성을 표현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제작 방법

-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페인팅용 흰색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변기모양의 전체적인 형태감과 균형을 고려하여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② 디자인의 중심부위인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연한 흰색부터 시

작하여 짙은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페인팅 한다.

③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이 표현되면 나머지 부분도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입힌다.

④ 페인팅 작업 시 사용하는 브러시는 크기와 형태별로 나누어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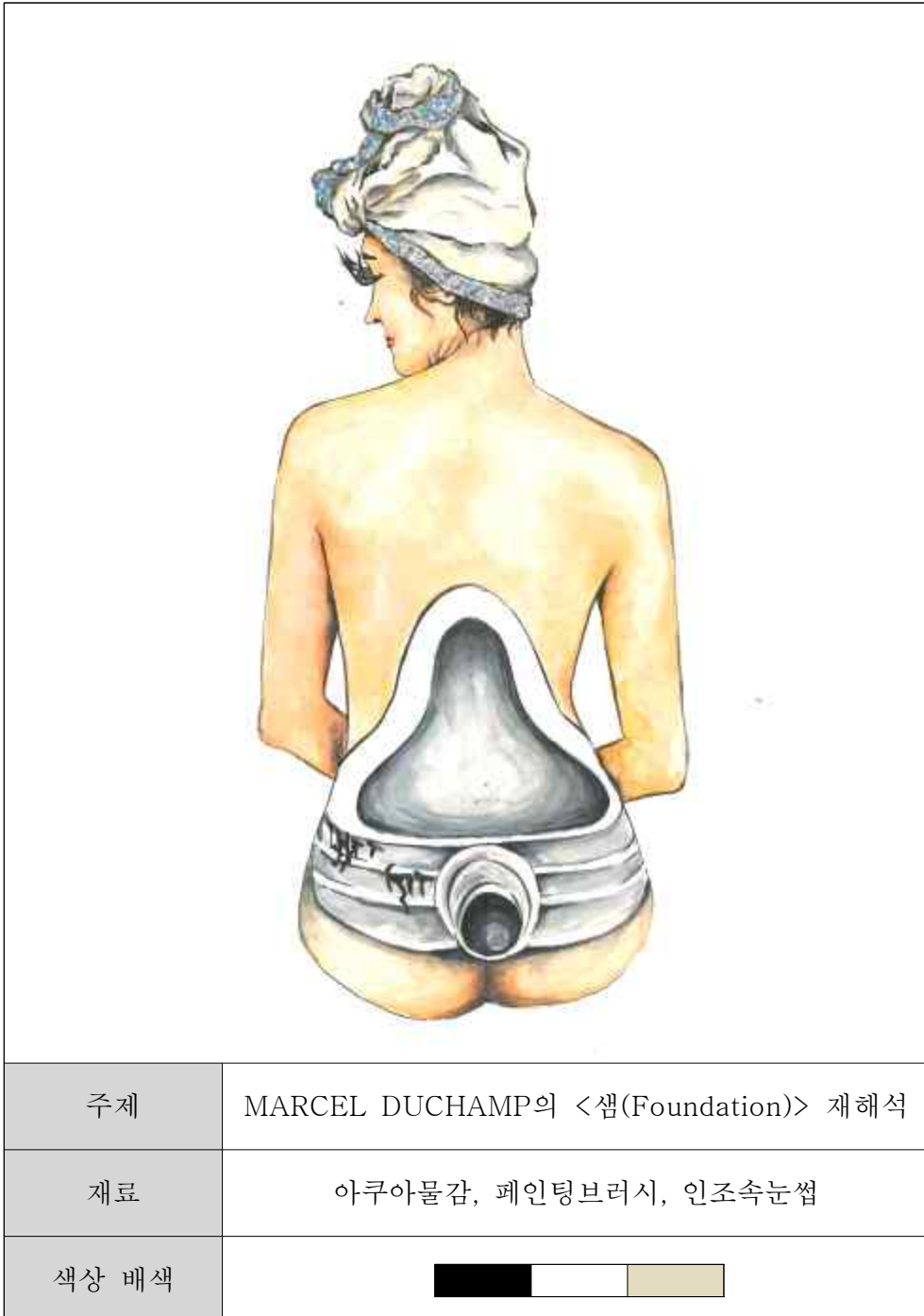
⑤ 뒤상의 '샘'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매끄러운 표면과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잘 표현 하였는지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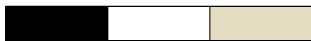
⑥ 명암의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며 페인팅을 한다.

⑦ 세필 붓을 사용하여 검정색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해 입체감을 표현한다.

⑧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모델에게 작품과 어울리는 속눈썹과 오브제를 사용하여 주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표 2 >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주제	MARCEL DUCHAMP의 <샘(Foundation)> 재해석
재료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색상 배색	



< 그림 41 > 작품 I-1



< 그림 42 > 작품 I-2

2) 작품 II 장소의 특수성을 재해석한 바디아트

(1) 디자인 의도

작품 II는 오웬스가 알레고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의 작품인 <나선형 제방(Spiral Jetty)>을 바탕으로 작품을 <표 3>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재해석 하였다. 이는 <그림 43>과 같이 나선형 제방이 갖는 곡선을 여성의 인체가 갖는 유기적인 곡선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44>는 장소의 특수성의 의미를 살려 컴퓨터 작업을 통해 자연 속에 동화된 인간과 인간의 몸을 통하여 표현되는 유기적 곡선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자연이 갖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2) 제작 방법

-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페인팅용 흰색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나선형 제방의 전체적인 큰 형태감과 균형을 고려하여 도안을 디자인한다.
- ② 도안을 디자인 한 후,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색을 입힌다.
- ③ 디자인의 중심부위를 연한 색부터 짙은 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살려 페인팅 한다.
- ④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이 표현되면 나머지 부분도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입힌다.
- ⑤ 페인팅 작업 시 사용하는 브러시는 크기와 형태별로 나누어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언더웨어에 페인팅 할 때에는 물감을 뭍게 하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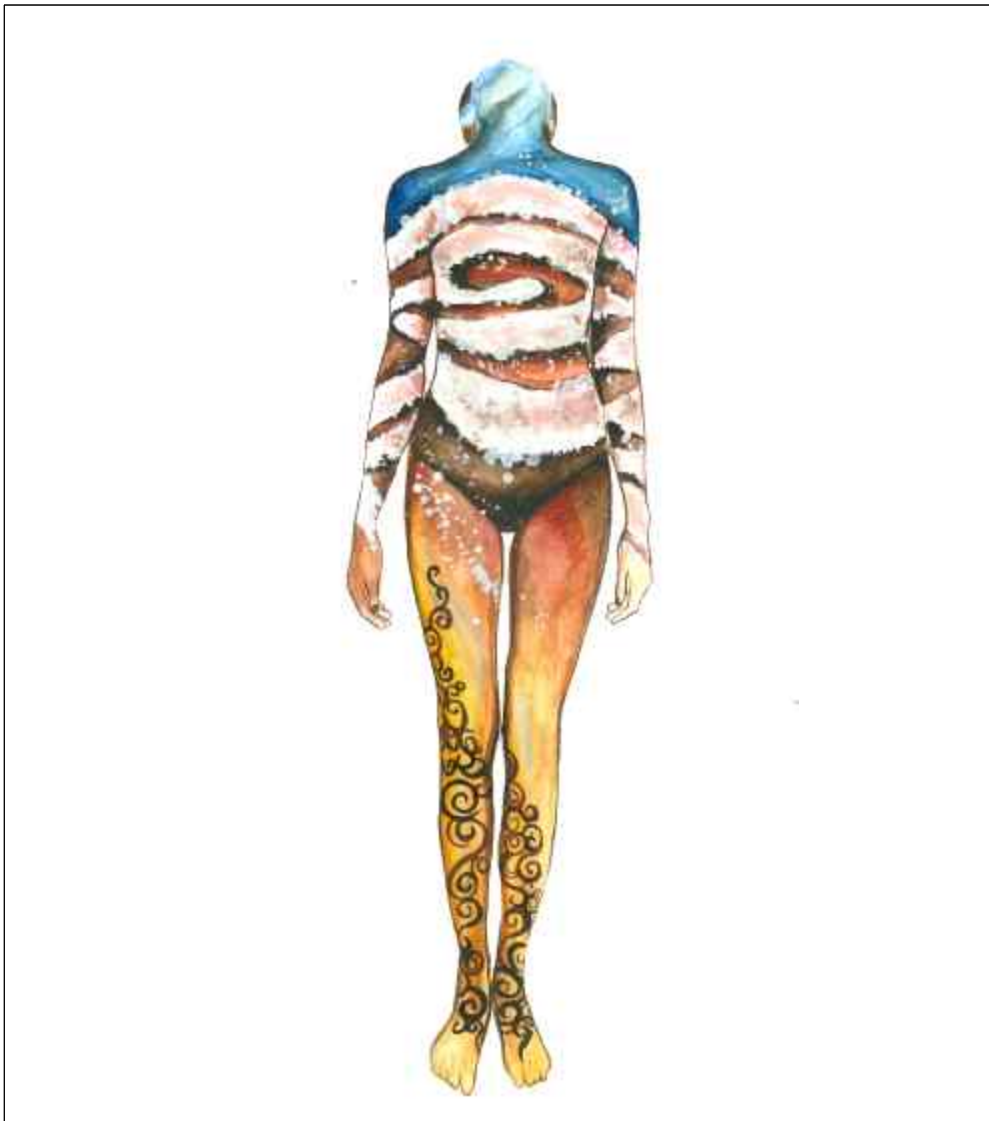
러 번 색을 입혀 선명하게 표현한다.


⑥ <나선형 제방> 작품과 유사하도록 뒷 편으로 거리를 두고 관찰하여 명암의 대비와 색상의 조화를 살펴보면서 페인팅을 한다.

⑦ 세필 붓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점찍기 기법과 뿌리기 기법을 이용하여 파도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준다.

⑧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수정 및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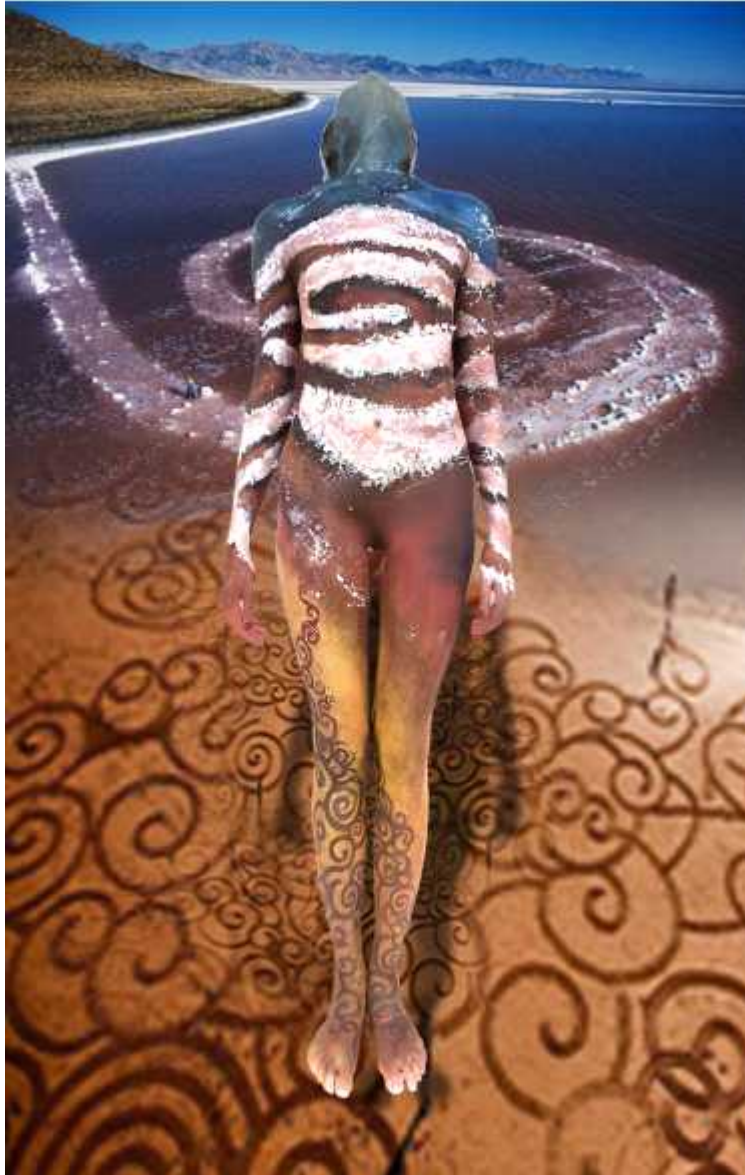
< 표 3 >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주제	Robert Smithson”의 <나선형 제방(Spiral Jetty)>재해석
재료	아쿠아 물감, 페인팅브러시
색상 배색	



<그림 43> 작품 II-1



<그림 44> 작품 II-2

3) 작품 Ⅲ - 장소의 특수성을 재해석한 바디아트

(1) 디자인 의도



작품 Ⅲ은 로버트 스미드슨의 작품인 <Yucatan Mirror # 1-9>을 바탕으로 <표 4>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재해석 하였다. <그림 45>는 거울의 반영과 굴절 현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미지의 치환 과정을 통하여 원본이 갖는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는 해체화되고 이런 과정을 사진을 통해 담아 치환과 해체화 일련의 과정을 일시 정지된 상태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러한 로버트 스미드슨의 거울을 이용한 작품을 바탕으로 자연과 동화되는 인체의 아름다움과 숲의 울창함을 결합하여 재해석 하고자 <그림 46>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장소의 특수성의 의미를 살려 표현하였다. 숲의 울창함은 다소 무거우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반면 여성의 인체가 갖는 부드럽고 유기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아르누보 예술과는 다른 분위기의 포스트모던한 작품으로 재해석 하였다.

(2) 제작 방법

-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착용시킨 후, 페인팅용 흰색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큰 형태부터 디자인한다.
- ② 큰형태감을 디자인한 후, 부분적인 면을 분할하여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③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색을 입힌다.
- ④ 디자인의 중심부위를 연한 색부터 시작하여 짙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페인팅 한다.

- ⑤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이 나타나면 나머지 부분도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입힌다.
- ⑥ 페인팅 작업 시 사용하는 브러시는 크기와 형태별로 나누어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언더웨어에 페인팅 할 때에는 물감을 뭍게 하여 여러 번 색을 입혀 선명하게 표현한다.
- ⑦ <Yucatan Mirror # 1-9> 작품과 유사하도록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고 관찰하여 명암의 대비와 색상의 조화를 살펴보면서 페인팅을 한다.
- ⑧ 세필 붓을 사용하여 검정색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해 입체감을 표현한다.
- ⑨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모델에게 작품과 어울리는 속눈썹을 붙여 주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표 4 >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주제	Robert Smithson”의 <Yucatan Mirror # 1-9> 재해석
재료	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 헤어장식
색상 배색	



< 그림 45 > 작품 III-1



< 그림 46 > 작품 Ⅲ-2 장소의 특수성을 재해석한 바디아트

4) 작품 IV -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를 재해석한 바디아트

(1) 디자인 의도

작품 IV는 크레이크 오웬스가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인 솔 르윗(Sol Lewitte)의 작품을 재해석 하였다. 솔 르윗의 Wall drawing #630, #631, #1240 작품을 바탕으로 표현하였으며, 디자인 스케치는 <표 5>와 같다.

모노톤의 기초 도형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솔르윗의 작품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림 47>의 작품은 단순한 배열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현대의 알고리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계적인 직선을 인체라는 캔버스에 그림으로써 곡선으로 변화됨에 따라 직선과 곡선의 혼용으로 인하여 더 큰 운동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림 48>은 무수한 직선의 반복 속에서 느껴지는 착시현상으로 부피가 있고 공간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여 미니멀리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는 일련의 치환과정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착용시킨 후, 페인팅용 흰색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큰 형태부터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② 부분적인 면을 분할하여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③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색을 입힌다.
- ④ 디자인의 중심부위를 연한 색부터 시작하여 짙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페인팅 한다.
- ⑤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이 나타나면 나머지 부분도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입힌다.
- ⑥ 페인팅 작업 시 사용하는 브러시는 크기와 형태별로 나누어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언더웨어에 페인팅 할 때에는 물감을 뭉게 하여 여러 번 색을 입혀 선명하게 표현한다.
- ⑦ 세필 붓을 사용하여 검정색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해 입체감을 표현한다.
- ⑧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직선의 형태를 확인 후 작품과 어울리는 얼굴 디자인작업 후 속눈썹으로 주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표 5>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p>주제</p>	<p>SOL LEWITT”의 <Wall drawing #630, #631, #1240> 재해석</p>
<p>재료</p>	<p>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p>
<p>색상 배색</p>	



< 그림 47 > 작품 IV-1



< 그림 48 > 작품 IV-2

5) 작품 V -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를 재해석한 바디아트

(1) 디자인 의도

작품 V는 솔 르윗의 작품인 <Tondo Stars Plate # 1-6>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표 6>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기본 도형과 기본 색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이 작품에 사용된 모든 도형과 색은 최소한의 요소로만 사용되었다. 모노톤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함과 다채로운 울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49>는 제한적으로 사용된 도형과 색의 위치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다양한 해석을 야기한다. 인체 위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도형과 색채의 조합과 인체라는 가변적인 캔버스를 통하여 예측불가능한 자연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림 50>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흐르는 듯한 형태와 화려한 색깔로 생동감을 가미하여 솔 르윗이 갤러리의 벽에 직접 그려 넣었던 벽 드로잉의 느낌을 살려 표현하였다.

(2) 제작 방법

-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착용시킨 후 페인팅용 흰색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큰 형태부터 도안을 디자인 한다.
- ② 인체의 곡선에 직선의 연속적인 선과 곡선의 반복 느낌을 살려 도안을

디자인 한 후 큰 면적부터 큰 붓을 이용하여 색을 입힌다.

③ 디자인의 중심부위를 연한 색부터 시작하여 짙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페인팅 한다.

④ 전체적인 형태감의 윤곽이 나타나면 나머지 부분도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입힌다.



⑤ 페인팅 작업 시 사용하는 브러시는 크기와 형태별로 나누어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언더웨어에 페인팅 할 때에는 물감을 뭍게 하여 여러 번 색을 입혀 선명하게 표현한다.

⑥ 단호하고 정갈한 직선을 표현하도록 뒤편에서 관찰하여 연속적인 선의 분할 균형과 화려한 색의 조화를 살펴보면서 페인팅을 한다.

⑦ 세필 붓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하여 입체감을 표현한다.

⑧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형태와 컬러의 배치를 확인한 후 작품과 어울리는 얼굴 디자인 작업 후 속눈썹으로 주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표 6>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p>주제</p>	<p>SOL LEWITT”의 <Tondo Stars Plate #1-6> 재해석</p>
<p>재료</p>	<p>아쿠아물감, 페인팅브러시, 인조속눈썹</p>
<p>색상 배색</p>	



< 그림 49 > 작품 V-1



< 그림 50 > 작품 V-2

V. 결 론

20세기 이후의 예술은 대담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띠면서 하나의 고정적이면서 보편적인 단일성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대중적인 임의적인 스타일로 확산되었다. 특히 바디아트는 개념예술이자 행위예술의 한 장르로 시작하여 전위적인 실험성과 하이브리드,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복합성, 잡종성, 실험성은 “난해함”이라는 특성으로 바디아트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로 국한시키며 다양한 의미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난해함을 명제로 한 다양한 의미는 알레고리라는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개념과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예술을 다의미적인 매개체에서 현대 사회의 여러 모습을 대변하는 수사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을 상징보다 더 많은 해석을 창출하도록 하는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이용하여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고,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개념 미술을 재구성하여 작품을 제작하여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철학 사상을 활용한 바디 아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서 예제로 사용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작품을 선정하였다. 마르셀 뒤샹, 로버트 스미드슨, 솔 르윗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 그림을 본 연구 작품 제작을 위하여 재구성하였다.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나타난 특성은 차용, 장소의 특수성,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로 구분된다. 우선 차용을 재해석한 바디아트 작품은 마르셀 뒤샹의 <샘> 작품을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작품 I <샘>은 형태와 의미가 고정되고 획일화된 기성품에 인체의 움직임이라는 가변성을 더함에 따라 역동적이며 변화가능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연에 속하는 인체 위에 샘을 그려 자연과 인체의 일련의 순환과정을 나타내었다.

장소의 특수성을 재해석한 바디아트에서는 로버트 스미드슨의 <나선형 제방>과 <Yucatan Mirror #1-9> 작품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였다. 작품 II <나선형 제방>은 여성의 인체에 나타난 유기적 곡선과 제방 위의 곡선을 매치함으로써 자연 속에 동화된 인간과 인간의 몸을 통한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작품 III <Yucatan Mirror #1-9>은 거울의 반영과 굴절을 통한 이미지의 치환과정과 원본이 아닌 사진이 갖는 이미지 해체화 및 치환과정을 드러내고자 숲이라는 장엄한 분위기를 여성의 인체라는 부드럽고 유기적인 곡선미와 연관 지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아르누보 예술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로 치환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를 재해석한 바디아트에서는 솔 르윗의 <Wall Drawing #630, #631, #1240>과 <Tondo Stars Plate #1-6> 작품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였다. 작품 IV의 모티브인 <Wall Drawing #630, #631, #1240>은 모노톤의 기초도형으로만 구성된 반복적인 패턴을 인체에 적용함에 따라 곡선으로 변화되어 직선과 곡선의 혼용이 나타나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직선이 곡선으로 변화되는 치환과정으로 인체의 움직임이라는 가변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현대의 알고리즘을 표현하였다. 작품 V은 <Tondo Stars Plate #1-6> 작품에서는 기본 도형과 기본색으로 구성된 반복적인 패턴을 인체라는 캔버스에 색과 위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기본도형과 기본색, 인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다채로운 문양과 해석이 나타남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자연과의 연관성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차용으로 재현된 작품들은 대부분 환경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자연이라는 신체 위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연에 속하는 인체 위에 기성품이나 기계적인 측면을 재현하여 역동적인 일련의 순환과정 및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을 표현하였다. 장소의 특수성으로 재현된 작품들 역시 앞의 차용과 같이 대지 미술의 한 부분으로서 “땅으로 돌아가자”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인위적 경계를 인체로 나타냄으로써 자연에 속한 인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회귀 본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재구성한 결과 차용, 장소의 특수성에서는 모두 대지 미술의 한 부분인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과 자연에 속한 인체 위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나타나는 가변적이면서 역동적인 자연으로의 동화과정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 작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의 창출이나, 대지 미술로 나타나는 장소의 특수성과 같은 맥락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치, 병렬, 누적에 의한 반복적인 축적의 구조의 작품에서는 직선과 인체의 결합으로 인한 큰 울동감과 도형과 색채, 움직이는 인체라는 조합으로 인하여 가변적인 모양과 다양한 해석을 창출함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의 연관성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작품은 컴퓨터 작업과 함께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로 표현됨에 따라 원본의 작품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었다. 기존의 작품들도 알레고리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 자체가 가지는 아우라(Aura)와 고정된 의미는 변화하였지만,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다른 차원의 의미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과 바디아트는 향후 더 많은 방식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으며, 기

존 작품을 통한 철학과 컴퓨터 작업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이미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1999.
- 김경진, 남선영, 「디지털 이미지 편집 & 합성을 위한 포토샵 7」, 교학사, 2002.
-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현대비평과 이론,
- 김영옥, 벤야민의 역사 철학과 미학 이론, 뷁히너와 현대문학, 15, 2000,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2002,
- 로잘린드 크라우스, 사진과 모조성에 대한 소고, 현대 미술의 지형도, 이영철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8,
- 매슈 게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 한길아트, 2001.
- 박보영, 이수경, 이진용, 「메이크업 아트」, 서울: 청구문화사, 2002.
- 박천신,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한연, 2008.
- 발터벤야민,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서울:민음사, 1983,
- 베르너슈비츠, 박순철 역, 「막스 에른스트」, 서울: 열화당, 1994.
-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서울: 시공사, 2000.
-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오광수,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 이야기」, 서울: 정우사, 1997.
- 오인영,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2010.
- 월간미술편,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서울:(주)월간미술, 1999.
- 이상봉, 「Mastering Beauty, 메이크업디자인」, 서울: 청구문화사.
- 이상훈, 「메이크업 예술 기법」, 서울: 도서출판 들샘, 2007.
- 이윤정, 정원정, 강명주, 「MAKE UP IDEA」, 서울: 청구문화사, 2009.
- 이인자, 복식 사회심리학, 수학사 1988,
- 이종기,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4.
-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 학교재, 1999.
- 이현주, 전연숙, 조진아, 한정아, 「The Make-up」, 서울: 도서출판예림, 2005.
- 임두빈, 「한권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서울: 가람기획, 2003.
- 임두빈,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서울: 미진사, 1988.
-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이영애, 김정희, 강명주, 김은주, 정철순, 홍수경,
「FACES in make-up」, 서울: 청구문화사, 2009.

카트린 클링죄어 르루아, 김영선 역, 「초현실주의」, 마로니에북스, 2008.

학위논문

- 김향자, 「디지털 패션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강현신,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명화, 「팝아트를 통한 알레고리 표현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현진, 「발터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으로 본 근현대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진,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혜연,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단청문양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문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알레고리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지우, 「판도라 상자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한 이원적 공간과 기법 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령, 「현대화에조형의 알레고리 연구-이미지차용, 장소특수성, 혼성 유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재형,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보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현주, 「피카소의 회화를 이용한 보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중석,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보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은정(2006),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종철, 「알레고리에 대한 미학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태동숙,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하임성, 「바로크 회화의 알레고리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의 유사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국외 문헌

Craig Owens,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Postmodernism, Beyond recognition: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Fiona Bradley, 「Surre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ans Sedlmayr, 「Kierkegaard über Picasso」, Salzburg, Der Tod des Lichtes, 1964.
James Johnson Sweeney, Partisan Review 15, no.2, 1948.
Jerzy Markiewicz, 「Olbinski and the Opera」, Hudson Hills Press, NewYork and Manchester, 2003.
John Berger, 「Ways of Seeing」, Viking Press, 1995.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Hudson Hills Press, NewYorkandManchester, 2005.

인터넷 자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
(검색일자:2014. 10.18)-네이버 캐스트
<http://www.pinterest.com> (검색일자: 2014.11.03.)-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http://www.koreabodypainting.com> (검색일자: 2014.11.03) -개인 홈페이지
<http://blog.daum.net/pen01> (검색일자: 2014.11.03.)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eaworld1234/6933638> (검색일자: 2014.11.03.) -다음 블로그
<http://blog.naver.com/baetizen> (검색일자:2014.11.03.) -네이버 블로그
www.kimjoon.simspace.com (검색일자:2014.11.05) -개인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motiontree/710> (검색일자: 2014.11.03) -네이버 블로그
<http://fr.wahooart.com> (검색일자: 2014.11.05) -와후아트닷컴
<http://jyj2422901.blog.me/40108809321> (검색일자: 2014.11.05) -네이버 블로그

ABSTRACT

A study on body art works according to the allegory theory of Craig Owens

KIM, Bo Yeon

Make-up and Special effect make-up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llegory theory is a genre of rhetoric and it is used as a tool to interpret postmodernism art. Body art is an art genre of postmodernism encompassing the concept of art and performing arts. In this study, we reconstructed body art works on the basis of a postmodernism work and reinterpreted it according to the allegory theory of Craig Owens. Thus, we selected five art works of representative artists used in the allegory theory of Craig Owens as subjec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llegory theory of Craig Owens, he thought allegorical meaning was implied in art works as both replenishment and replacement of meaning were continued betwee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viewer of the works.

Work I represents 'borrowing' and works II and III represent uniqueness of the place. Works IV and V represent a structure of repetitive accumulation by juxtaposed, parallel and cumulative structure.

Work I 'borrowing' represents the process of assimilation to nature through the cycle of human body as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structure of human body with toilet is expressed by applying <Foundation> of Marchell Duchamp to the human body.

Works II and III represent a combination of sublime nature and beauty of human body's curves by combining a dense of forest with the beauty of human body representing organic curves assimilated to nature through a reconstruction of <Spiral Jetty> and <Youcatan Mirro #1-9> of Robert Smithon as uniqueness of the place.

In repetitive accumulation caused by juxtaposed, parallel and cumulative structure, works IV and V are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Wall drawing> and <Tondo Plate #1-6> of Sol Lewitte's works and represent a series of substitution processes through splendid movement caused by softness of curves and combination of lines, curves and shapes by using mechanical lines, basic shape patterns and basic colors on the human body.

As the results of analyzing art works in this study, homing instinct to nature and variable and dynamic assimilation processes are shown through the human body belonging to nature by combining land art and concept art with body art, which is the performing ar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it includes the relevance of variable and unpredictable nature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human body with art works. Through

these processes, the interaction of aesthetic aspects of body art and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representing complexity continues to create and replace various meanings. Thus, viewers could recognize the allegorical meanings included in the art works.

Since the body art can be reconstructed as three-dimensional and realistic images through computer works and completely new meanings different from previous art works can be created, it has been highlighted. Thus, postmodernism art and body art can represent more images through computer works using 3D. Studies are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image mimesis of body art and postmodernism applying 3D computer works based on previous art works.